

현대중공업가족

2018 04

싱그러운 '봄'의 소리

일과 삶의 균형 / 달라진 저녁시간 / 우리 곁의 도서관 / 봄의 불청객



싱그러운 '봄'의 소리

- 04 일과 삶의 균형
- 06 달라진 저녁시간
- 08 우리 곁의 도서관
- 10 봄의 불청객

사람·일

- 12 뉴스 포커스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 특허 등록
- 13 알아봅시다
현대삼호중공업 세월호 직립 공사
- 14 현장을 가다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판계팀
- 18 재미있는 선박의 이름
- 20 생생 현장기
현대중공업 대학생 인턴십
- 21 만나보았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강동원 대리
- 22 新 직장인 생활백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
- 24 아름다운 동행
현중어머니회 태연재활원 자원봉사



“이른 아침 경주 보문정의 봄”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고 따뜻한 햇살 아래 피어난 벚꽃처럼 우리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김중훈 과장 (현대미포조선 사업기획부)



08



24



30



32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9

현대미포조선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546

현대삼호중공업 총무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14



28



지역·삶

- 25 가볼 만한 곳
경주 월정교
- 26 지역 소식
울산 월봉시장 달빛 바비큐 거리
- 28 자녀와 함께
부산 아세안문화원
- 30 맛있는 이야기
전남 딸기 체험 농장
- 32 축제 속으로 전국의 벚꽃 축제
- 34 건강칼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 36 나를 만나는 시간 '다름' 인정하기
- 38 사랑을 나눕시다
울산 동구 서부동 정선정 씨
- 40 문화 포커스
연극 '룸넘버13' / 어린이 뮤지컬 '무지개물고기'
- 42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신나는 노래 교실
- 44 이달의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VS 램페이지
- 46 축구단 소식
- 48 트렌드 따라잡기
- 49 생활법률

보람의 일터

- 50 뉴스 하이라이트
- 54 그룹사 소식
- 56 사우들의 추천 도서
- 58 현중 가족 글마당
- 64 축하합니다
- 65 만화
- 66 쉬어가는 페이지
- 67 공감 마당

‘워라밸’로 일과 삶 모두에서 ‘원-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반기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저절로 찾아질 수는 없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업무 효율을 높여 야근을 하지 않고도 제 시간에 맡은바 역할을 완수해낼 수 있어야 한다.

미루는 습관을 없애라

워크의 역량은 부족하면서 라이프에만 치중하려는 사람을 흔히 ‘민폐’라고 부른다. ‘라이프 앤 워크 밸런스’가 아니라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의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워라밸을 위해서는 우선 일을 미루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통상 미루는 일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지만 몇 가지 사소한 이유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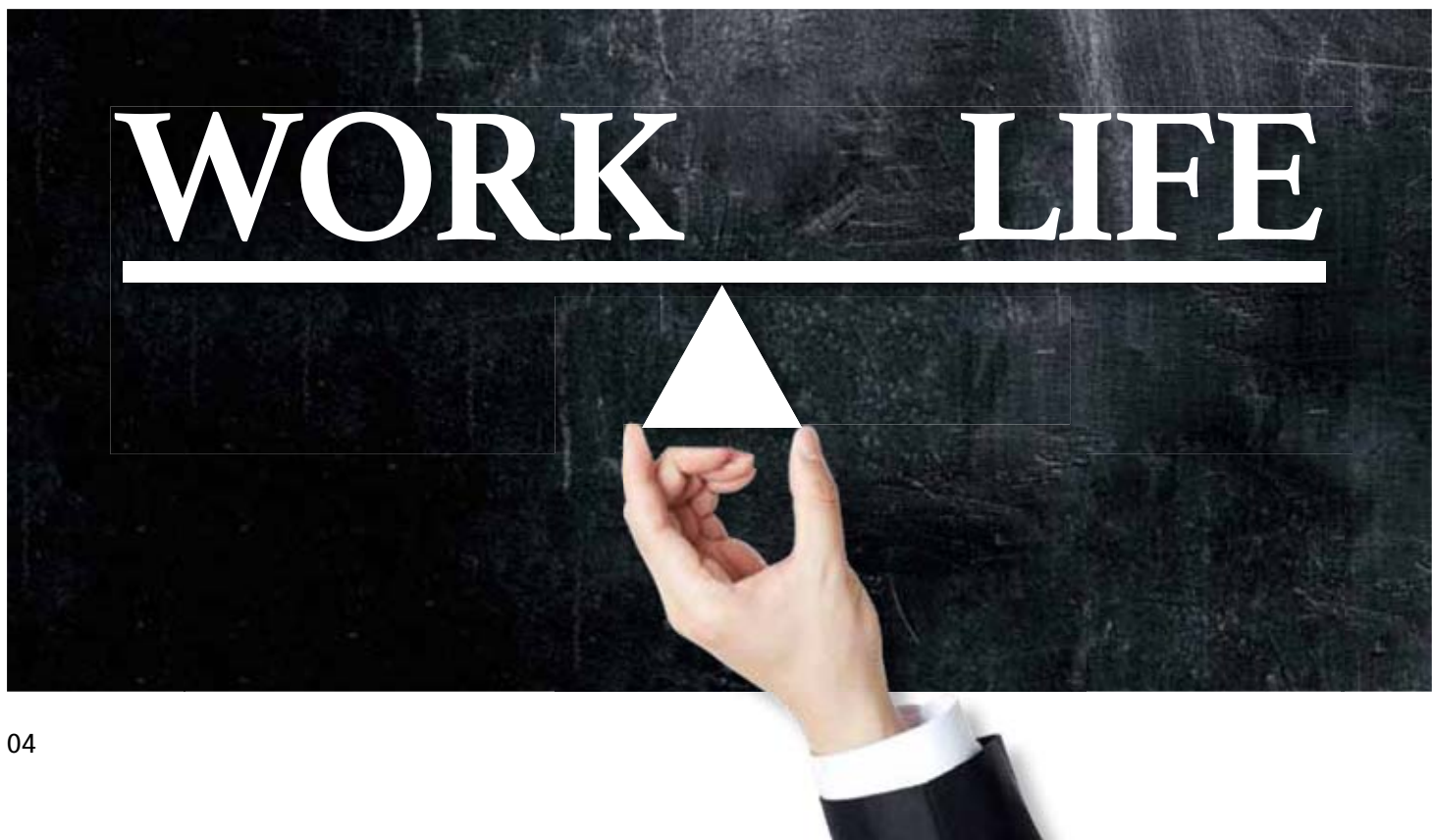
경영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알렌은 2분만 투자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로 조금만 나아가면, 그 동력을 활용해 시작한

일을 점점 빠르고 쉽게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바퀴가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움직이는 게 어렵지 않다.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딱 2분만 고민해보는 것,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어떤 책이든 딱 2분만 읽어보는 것, 이러한 소소한 행동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몰입하면 어려운 일도 ‘척척’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난다. 최고조 몰입 상태가 되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몸과 두뇌에서 흘러나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을 척척 해내곤 한



다. 스위치를 켜고 끄듯 몰입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몰입의 중요성을 알고 그 방법을 익혀간다면 우리 삶은 훨씬 더 건강하게 바뀔 수 있다.

전문가들은 몰입을 위해서는 '기술'과 '도전'이라는 2가지 조건이 적절히 조합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몰입하고자 하는 과제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기술보다는 목표를 높여야 하고, 과제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목표를 낮추고 우선 기술을 익혀야 한다.

또한 육체적 에너지뿐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적 에너지는 외부의 간섭 없이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정신적 에너지를 관리하는 노력과 연습을 하면 쓸데없이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여 다른 몰입에 또는 워라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된다.

회복 탄력성 키우기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말한다. 우리 몸에 근육이 많으면 신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을 만들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순간적인 충동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또한 대인 관계 능력도 갖춰야 하는데, 주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타인과의 공감으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디톡스로 삶의 쉼표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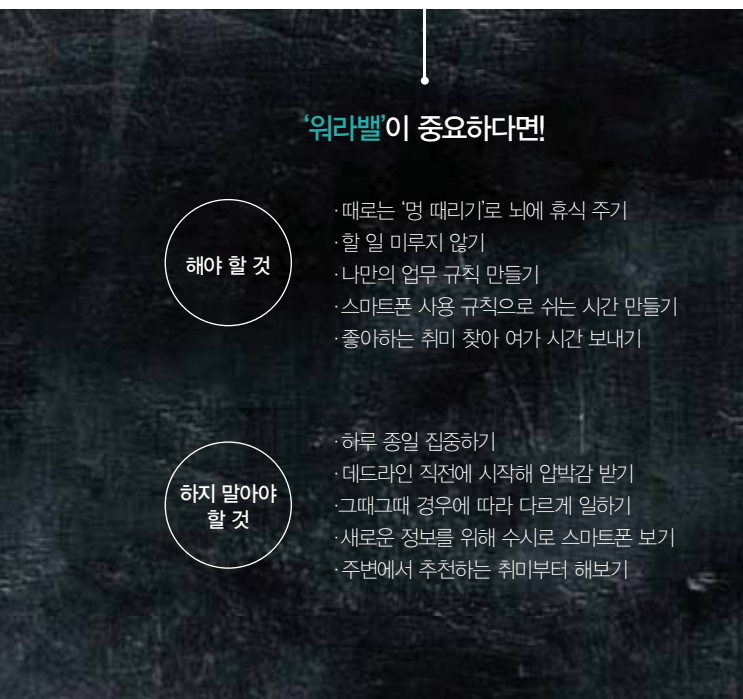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SNS의 등장으로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디지털 중독에 빠졌다. 심지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뇌의 기능이 감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억력까지 퇴화해버리는 디지털 치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뇌에 적절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Detox, 해독)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이유로 '목적 없이 본다'가 가장 많다고 한다.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푸시 알림 서비스를 해제하고,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다는 규칙을 스스로 정해보자. 예를 들어 '버스 안에서 보지 않는다', '침대에서 보지 않는다' 등 말이다.

워라벨을 이룬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은 물론, 일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일에도 나를 맞추는 필요가 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면 사고의 틀은 달라질 수 있다.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나의 비전, 목표와 동일시하면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게 된다. 타인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해롭지만 자율적인 스트레스는 약이 된다. 자신의 향상심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서적 '하우투 워라벨'(안성민 저)





나를 한 뼘 더 자라게 하는 시간

“현대중공업 독서왕을 꿈꾸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독서가 어느새 제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서의 재미에 빠지게 된 것은 지난해 담당하던 호선이 인도된 후부터인데요, 평소에도 틈틈이 책을 읽어 왔으나, 야근이 사라지자 좀 더 여유롭게 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책 읽는 시간이 많아지자 독서량도 늘어났어요. 월 평균 8~9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특히 회사 안에 있는 지식정보센터를 통해서 100여권의 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독서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가장 좋아요.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쁜 일상의 큰 휴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감상문을 써 볼 계획입니다.



한준수 대리 (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생산부)



박영락 사원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지원팀)

“일·학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것”

저는 올해 초부터 일과 후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야간)로 편입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제 모습에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주변 지인들의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격증 취득,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관련 지식 습득과 자기 계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경영학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경영지원 부문에서 실무를 하는데 경영학 이론을 배워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짧게나마 느낀 점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번 도전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다양한 목표를 세워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마음을 간직하며 즐겁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파이팅!

“즐거운 수영으로 몸과 마음을 활기치게”

저는 일주일에 세 번은 강사님께 강습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유 수영을 하며 저녁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퇴근시간이 되면 '오늘은 뭐하지?'라는 생각과 함께 삶의 활력이 되는 일을 찾지 못해 무기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하루가 즐겁고, 얼굴색이 환해졌다는 주변인들의 칭찬까지 듣고 있습니다.

수영이라는 취미생활로 인해 지친 일상에서 활력을 얻었고, 저녁시간을 이용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김은지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설계부)

시간의 양(量)은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며, 일 년은 365일이다. 부자라고 더 가질 수도, 어리다고 덜 갖는 일도 없다. 하지만 시간의 질(質)은 불공평하다. 순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한 시간은 지금을 허투루 보내는 사람의 하루보다 훨씬 값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저녁시간을 어제보다 한 뼉 더 자라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우들을 만나 보았다.



최미진 사원 (현대중공업 시스템성능연구실)
최수진 사원 (주모스 보전부)

“꽃 만들며 웃음꽃, 이야기꽃도 피워요”

친자매인 저희는 지난 달 H오피스에 올라온 한마음회관의 ‘플라워아트 강좌’ 공지를 보고 함께 수업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친 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만의 꽃을 만들 수 있는 플라워아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꽃을 볼 때 마음속으로 ‘예쁘다’고 외쳤던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저 꽃을 조금 더 예쁘게 보이게 할까’와 같은 상상의 나라를 펼쳐곤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꽃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또한 저희 자매간의 대화도 늘었습니다. 퇴근 시간도 다르고 퇴근 후에는 각자 피로를 풀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이야기꽃은 물론 웃음꽃까지 활짝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꽃과 함께 삶의 향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함께해서 더욱 즐거워요”

저는 현대중공업그룹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강성태입니다. 4년 전 미포웨어 게시판에 올라온 오케스트라 회원 모집 공고를 통해 단원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악기를 멋지게 다루고 싶었던 마음만 있었던 제게 누군가 비올라를 추천해주셨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으나, 음계가 낮아 저음이 더 돋보이는 비올라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리처드 용재 오닐’의 ‘섬 집 아기’ 연주를 듣고 비올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저는, 트레이너 분께 레슨을 받고 연습을 꾸준히 하며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저녁에 동구 현대예술관에서 단원들과 모여 합주를 하는데 다양한 관현악기들이 내는 음색에 취하다 보면 힐링이 절로 된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오케스트라는 올해 7월 ‘2018 울산조선해양축제’ 공연과 11월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혼자 연주해도 재미있는 악기 연주, 함께 한다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현중 가족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문을 두드려 보세요.



강성태 사원 (현대미포조선 품질경영부)



고연우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HS-POPS팀)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 목표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대가 마땅치 않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모바일로도 시청이 가능한 장점을 이용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강의를 보며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잠을 자기 전까지 강의를 보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귀찮다는 핑계로 잘 안 보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실천해보니 어렵지 않게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두달밖에 남지 않은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새해 목표를 꼭 이뤄보겠습니다.

책 읽는 문화 공간, '가까워 더 좋다'

바야흐로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봄, 4월이 왔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지금은 독서를 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올 봄, 지식과 감성을 충전해줄 우리 곁의 아주 가까운 도서관들을 소개한다.



자료실에서 전 직원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기까지

1978년 조선사업부의 자료실로 출발한 지식정보센터는 조선 설계 부문 내 기술정보관리추진팀으로 구성·운영되었다. 1983년 현 선박해양연구소 기술개발연구부의 기술정보과로 발족하며 기존 도서관의 기능을 탈피하고 정보관리 기능을 확대하였다.

1989년 종합연구소의 발족과 함께 자료실은 기술관리실로 독립, 전사 차원의 기술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업계 최초 소장자료 온라인 검색 시스템(HiTMS)을 구축하며 전자도서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 중앙자료실은 '기술정보센터'로 개칭되었다. 국내 최초 파우치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우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후 2008년 HHI전자도서관으로 업그레이드, 2012년 '지식정보센터'로 개칭되며 본관 지하 1층으로 이전 및 재개장 했다. 현재 지식정보센터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축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두에게 활짝 열린 지식 창구

지식정보센터는 단행본 2만2천여권(기술도서 2만1천여권, 교양도서 1천여권), 산업규격/선급 규칙 2만4천여건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장자료는 열람자가 원하는 책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개가제(開架制)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약 307제곱미터(92평) 규모의 지식정보센터는 북 카페(Book Cafe)식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독서를 즐기는 사우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하루 평균 50명의 사우들이 지식정보센터를 방문하고 있고, 파우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우들도 하루에 60여명이 된다.

박정은 사원(현대중공업 조선설계운영부)은 “HHI 지식정보센터는 항상 사우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구비해 사우들이 지식정보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정보센터는 현대중공업 및 계열사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자료는 한번에 최대 10권까지 15일간 대출할 수 있고, 해당 자료

의 예약자가 없을 경우 10일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중앙기술원 2층에도 연구개발 업무와 학습, 휴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아이디어 카페(구 지식마루)가 있다. 이곳은 무인도서관으로 운영되는데, 단행본 50여권과 저널 10여종이 비치돼 있다.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재충전을 위해 안락하게 꾸며진 점이 특징이다.

김미진 책임연구원(현대중공업 열유체시스템연구실)은 “연구를 하다 생각이 막힐 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아이디어 카페를 찾는다”며, “다양한 자료가 찾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분위기가 좋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화·소통의 장 ‘삼호 문화의 집’

“와아~” 현대삼호중공업 한마음회관 2층에 위치한 ‘문화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곳은 2001년 말, ‘생활 속의 문화체험 공간’이란 주제로 개관한 복합 문화센터로 도서관, 문화 관람실, 문화 창작실, 정보자료실, A/V감상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이다.

가장 많은 이용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2012년에 개관되었다. 당시 책을 읽고 빌려보고 싶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활용이 미비한 공간을 재정비 했다. 아담한 공간이지만 소설과 잡지 등이 종류별로 구비돼 있고, 깔끔하며 세련

된 인테리어로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는 이들에게 다시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묘한 구석이 있다.

영유아 자녀를 위한 ‘어린이 책 나라’ 공간도 마련돼 있다. 구석구석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고, 아기자기한 소품과 폭신폭신했던 쿠션이 비치돼 있어 시각적인 효과와 편안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이나 씨(38세)는 “처음엔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는 편”이라고 한다.

이곳은 매월 초가 되면 월간지와 영화 DVD를, 단행본 도서는 분기마다 1회 정도 구입한다. 더러 원하는 서적이나 화제가 되는 도서일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신간도서도 놓치지 않고 접할 수 있다. 이곳에서 도서열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대출은 도서회원에게 한하여 가능하다.

도서관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취미나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며, “문학 분야는 도서관 장서 보유량이 가장 많고, 도서 이용객들의 구입 희망도 많아 열람 및 대출 실적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최근 이곳은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다. 서예, 생활요가, 탁구 등 폭넓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흥미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전한 육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독서와 더불어 문화 활동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집’에서 많은 이들이 즐거움과 활력을 얻어가길 바란다.

지식정보센터

위치 현대중공업 조선본관 1층

이용 시간 근무일 오전 8시 ~ 오후 5시

(H네 전자도서관, 전자저널은 24시간 이용가능)

대출 기간 일반 대출 15일(대출권수 10권, 갱신 10일, 예약권수 5권)

담당자 박해빈 사원(현대중공업 조선설계운영부)

삼호 문화의 집

위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12 2층 (한마음회관 2층)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

따뜻해져 들뜨는 기분도 잠시, 외출이 두려워지는 날씨 소식이 들려온다. 바로 황사, 미세먼지 소식이다.

뿌연 하늘, 창을 열거나 숨쉬기조차 거북스럽게 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무엇이든 알고 대처하면 슬기롭게 무찌를 수 있는 법!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알아본다.

황사와 미세먼지 어떻게 다른가?

미세먼지와 황사는 닮은 듯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발생원인, 입자의 크기, 성분, 그리고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황사의 경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와 흙먼지다. 실제로 황사는 과거 기

록에도 언급되어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해 온 자연 현상이다. 아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고원지대에서 불어온 황사 그 자체로는 미세먼지에 비해 비교적 오염 물질을 덜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미세먼지는 대부분 산업시설과 자동차 등 인위적인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된다. 유독 물질, 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심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근 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우, 평소 기관지가 약했던 사람들은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입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심장 질환과 순환기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의해 고혈압,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가 약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들은 미세먼지

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이렇게 대처하자!

미세먼지와 황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미세먼지와 황사의 수치가 높은 날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외출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양치질이나 구강세정제를 사용해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도록 하자.

황사와 미세먼지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가 미세먼지와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



01. 외출할 때는 모자와 안경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막아 피지분비와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하므로 모자를 착용해 두피를 보호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한다. 또,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렌즈 착용보다는 안경 착용을 권장한다.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분진용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면 후두염, 기관지염 등 질환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02. 수시로 물을 드세요.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목을 잠기게 하고 따갑게 만들며, 심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나쁜 미세먼지를 걸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수시로 마시기를 권한다.



03. 세수, 세안, 양치를 꼼꼼히 하세요.

예민하고 약한 피부인 경우 외출 후 곧바로 샤워하고 세안도 더 꼼꼼히 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옷으로는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 외출 후에는 즉시 몸을 청결히 해야 한다.



04. 미역,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하세요.

미역, 과일, 채소에는 미세먼지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녹차를 자주 마셔주는 것도 좋은데, 녹차가 혈액의 수분 함량을 높여 소변을 통해 중금속을 빠르게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해결!

Q. 삼겹살을 먹으면 미세먼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A. 예전부터 황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삼겹살을 먹어서 기관지의 먼지를 씻어내려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이다. 돼지고기의 살코기 부위가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식품일 수는 있지만 황사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문제를 직접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Q.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청소할 때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득이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환기 후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에 물걸레질을 깨끗이 해주자. 하지만 천식,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잠잠해질 때까지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

Q. 미세먼지가 심한 것을 모르고 베란다에 과일을 내놓았는데, 먹어도 될까?

A.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과일, 채소류, 수산물 등은 랩이나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도록 하자. 그리고 먹기 전에는 세척제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Q.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은?

A. 미세먼지 대부분은 코를 통해 흡입되기 때문에 코, 뺨 아래턱 쪽으로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를 잘 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방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K'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KF80, KF94, KF99 등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는 크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세탁을 하면 마스크의 모양이 변형되기에 세탁 후 재사용은 피해야 한다.

“곡 외판 자동용접 적용률 증가로 생산성 2배 높인다”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가 개발한 새로운 핀 지그(Pin Jig) 배치 프로그램이 2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특허로 정식 등록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선박블록 배치방법’으로 명칭된 이 특허는 스마트 지그(Smart Jig) 프로그램 기능 중 하나인 핀 지그 배치 최적화를 이용하여 곡 외판 자동용접 효율을 극대화했다.

기존의 선박설계 CAD시스템은 블록 경계 면의 외판 끝단 높이만을 고려해 핀 지그 배치를 설계함에 따라 블록 조립 시 3차원 곡면에 의해 중, 횡 경사가 발생되어 곡 외판 자동용접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대미포조선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핀 지그 배치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박 곡 블록 제작에 적용해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단위 블록 내 일면자동용접(FGB)시공이 가능한 곡 외판 접합부 최대길이를 추출함과 동시에 블록 회전 각도를 계산함으로써 블록을 지지하고 있는 각각의 핀 지그의 높이를 자동 산출하는 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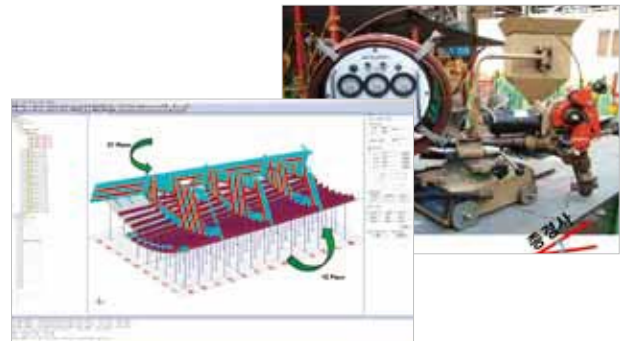
시스템 적용 후 곡 자동용접 적용률이 기존 30%에서 67%로 대폭 증가돼, 연간 5억1천여만원의 금액을 절감하는 성과

를 거뒀다.

특히 선박 제작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곡 블록 외판용접 생산성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여 조립 정반 회전율을 높이고 품질 향상도 이뤄냈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사에서도 지난 2014년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는 이외에도 선박의 닻을 외판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인 ‘벨 마우스(Bell Mouth)의 3차원 형상을 구현하는 방법’ 등 3건의 등록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의 기술과 장비로 세월호 바로 세운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3년 후인 지난해 4월, 침몰 해역에서 인양돼 목포신항만 부두에 거치됐다.

제대로 된 선체 정밀 조사를 위해 누워 있는 선체를 바로 세우기로 결정됐고, 지난 1월 말 현대삼호중공업이 세월호 선체 직립 공사의 수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현장과 가까이 풍부한 인프라 지원이 가능하고, 공사에 투입되는 1만톤 해상크레인(HD-10000)을 설계·제작한 회사라는 사실이 수행업체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말,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공사를 앞두고 먼저 세월호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작업이 실시됐다. 이는 세월호 직립을 위한 3단계 작업 중 1단계로, 부두와 수직으로 놓여있던 선체를 90도 회전해 평행상태로 만들어 해상크레인 직립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모토 트랜스포터(MT) 364축으로 선체를 들고 세월호 하부를 받치고 있던 받침대를 제거한 뒤 세월호를 이동시켰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는 시속 1킬로미터로 저속 이동하며, 조심스럽게 톱질을 하듯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길이 148미터, 무게 8천400톤인 세월호의

선체를 서서히 부두 쪽으로 옮겨, 부두와 수평 방향으로 약 60미터 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직립 공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

세월호 선체의 평행이동이 순조롭게 완료됨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은 선체의 훼손을 막기 위한 보강 작업을 거친 후 직립을 위해 선체 측면 33곳에 ‘L자 형태 철제 수직빔’을 설치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형욱 대외협력담당관은 “기상 여건과 지반 상태, 약한 선체 등 평행이동 작업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며, “오는 5월 31일, 목표로 하고 있는 직립 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5월 말 직립을 목표로 1만톤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세월호 선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015년 제작한 이 해상크레인은 가로 182미터, 폭 70미터, 높이 11미터의 규모로, 바지선의 재화중량(최대적재량)은 3만9천400톤을 자랑한다.

“선박 건조 공정 ‘첫 단추’ 완벽을 더하다”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판계팀은 선체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평판’을 생산한다.

블록 조립 과정의 첫 단계인 만큼 후행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을 더하고 있다.

기민한 조직력, 완벽한 정도 관리,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지난해 연말 포상에서는 ‘우수생산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재절단 이후 첫 작업, '공정 준수'는 숙명

강재절단 이후 제일 첫 작업은 바로 '판계'다. 판계란, 말 그대로 철판을 펼쳐 붙이는 것을 뜻한다. 납품된 철판을 이어 붙이고 선체를 구성하는 큰 평판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판계 작업은 총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철판 5장을 연결하고 이를 용접한다. 이후 마킹(Marking) 작업을 거쳐 앵글, 론지 등을 취부(Fit-Up) 한 뒤 용접하고 검사장으로 넘겨 사상 등의 수정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판은 본격적인 선박 블록 조립공정으로 전달된다.



조립공정의 제일 첫 단계인 만큼 '공정 준수'는 이들의 숙명이다. 첫 시작부터 공정을 맞추지 못하면 이후 수많은 후행 공정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막대한 책임감이 따른다.

이춘환 팀장을 중심으로 46명의 팀원들로 이뤄진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판계팀은 2개 반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건조 공정에 맞춰 완성하는 평판의 개수는 하루 평균 17개 판넬(14,000×15,000mm). 하루 24시간 중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한 시간에 한 장의 평판을 생산해내는 셈이다.

판계팀에서 생산하는 평판은 한 달에 1천3백여장. 주·야간으로 작업해도 빠듯한 작업량이지만, 판계팀은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탄력적인 인력 운용으로 물량 변화 등의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베테랑들을 중심으로 직무 순환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개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작으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민한 조직력·완벽한 정도관리로 ‘2017 우수생산팀’ 영예

기민하게 움직이는 ‘조직력’도 판계팀의 강점이다. 다른 팀에 비해 야간작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밤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절차를 기다리다간 공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판계팀은 조장, 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책임과 권한 이양을 통해 자율적으로 우선 문제를 해결한 뒤,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완벽한 품질과 정도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판계팀은 각 작업 단계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중점 관리 사항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항상 팀원들과 함께 논의한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들과 신입들의 의견이 집약된 이 체크리스트는 작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의 기본인 ‘도면’에 대해 항상 팀원들과 공부하고 논의한다. 자칫 오작으로 인한 시간, 인력, 자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판계팀은 2017년 연말 포상에서 ‘우수생산팀’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소통과 화합, 배려가 있는 판계팀

이들의 슬로건은 “소통과 화합, 배려가 있는 판계팀”이다. 이 팀은 주간 조가 오전 8시~오후 6시, 야간 조가 오후 8시 ~ 오전 6시에 근무를 한다. 1조가 해놓은 작업을 2조가 이어서 진행하는 만큼 서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동

오랜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들과
신입들의 의견이 집약된
중점 관리 사항 체크리스트는 판계팀의
작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료들이 고스란히 문제를 떠안게 돼 서로 간의 배려가 특히 중요하다.

모든 팀원들이 주·야간 작업으로 나눠져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렵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소규모 조별 모임을 통한 ‘소통’에 있다. 5~6명씩 함께 모여 식사하며, 친목을 다지는 등 서로를 이해하고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있다.

판계팀은 안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아울러 팀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루 3번 TBM을 통해 팀원의 건강과 개별 작업 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공유한다. 또 작업 특성에 따라 안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고 빈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 표시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등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춘환 팀장은 “우리 팀은 급하면 급한 만큼 작업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조직체계와 팀원들의 기량이 자랑이라며”, “밤낮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팀원 모두가 24시간 대기조나 마찬가지로이지만, 그런 환경이 우리 팀의 팀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고 말했다.

힘든 여건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는 이들의 모습에서 긍정의 에너지와 굳은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다.



“선주들에게 낭만을 선물합니다!”

큰 선박이든 작은 선박이든 저마다 소중한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한두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돼도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깊다. 사보 편집실은 지난 3년간 건조한 약 180여척의 선박을 돌아보며, 선박에 새겨진 이름과 그 의미를 쫓아가보았다.

선원들의 안전항해 기원

시대를 뛰어넘어, 선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이다. 일기예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험한 폭풍우와 암초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며, 배에 그리스나 북유럽 신의 이름을 붙이고 안전항해를 기원하고 있다.

그리스 해운인 CMM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6만입방미터급 이상의 LPG운반선 6척을 인도받았고, 이들 선박을 ‘포세이돈(Poseidon/바다의 신)호’, ‘아폴로(Apollo/태양의 신)호’로 각각 명명했다.

그리스 올림픽shipping(Olympic Shipping)사도 지난해 5월 완공된 15만9천톤급 원유운반선을 ‘루나호’로 명명하고, 달의 여신인 루나(Luna)에게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달라고 기원했다.

노르웨이 오로라(Aurora) LPG사는 북유럽 신의 이름을 선박에 붙이고 있는데, 2016년에 건조된 8만4천입방미터급 LPG운반선들의 이름은 ‘발드르(Balder/빛의 신)호’, ‘노르드(Njord/바람과 바다 등을 관장하는 신)호’, ‘바르(Var/약속의

신)호’ 등이다.

이 노르웨이 선주는 자신의 선박에 에리즈(Aries, 양자리), 리브라(Libra, 천칭자리), 오리온(Orion) 등의 별자리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먼 옛날, 별자리를 따라 북대서양을 가로질렀던 바이킹의 후예임을 알리고 있다.

고향을 향한 마음 달래기도

한편, 선박의 이름에는 땅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다. 선원들은 한번 항해에 오르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가량 바다 위에 있게 돼, 지독한 향수병을 앓곤 한다. 이에 선주들은 자국 땅을 연상시키는 선명(船名)을 지어, 선원들의 마음을 달래고 격려한다.

그리스 선 엔터프라이즈(Sun Enterprises)사 조지 리바노스(George Livanos) 회장은 지난 2016년 직접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새로 건조한 15만9천톤급 유조선을 ‘키오스(Khios)호’로 명명했다. 키오스는 그리스 동부 섬이자 리바노스 회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아랍에미리트 UASC사도 지난 2016년 1만8천8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을 각각 티하마(Tihama)호, 알다나(Al Dahna)호로 명명했는데, 이 이름은 그들이 사는 아라비아반도 일대의 사막에서 따왔다.

때로는 자국에서 피어나는 꽃의 이름이 배에 붙기도 한다. 말레이시아 MISC사는 지난 2016년 인도받은 15만200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을 동백꽃인 카멜리아(Camellia), 목련꽃인 켄파카(Cempaka)로 명명했다.

싱가포르 BW 마리타임(Maritime)사도 지난 2014년과 2015년 잇달아 건조된 16만1천870입방미터급 LNG운반선 2척을 각각 '반다(Vanda)호', '리아라(Leeara)호'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싱가포르 국화인 양란(洋蘭)을 의미한다.

그리운 그 사람 영원하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는 배도 있다. 멕시코 그루포 톰자(Grupo Tomza)사의 선박이 대표적이다.

선주인 토마스 사라고사(Tomas Zaragoza)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척의 8만4천입방미터급 LPG운반선에 요절한 아들인 알버트(Albert) 군의 이름을 달았다. 이 선주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가 못다 펼친 꿈을 새로운 선박에서 풀기를 기원했다.

필리핀 차코스(Tsakos)사도 고인이 된 딸을 그리워하며, 2016년 17만4천입방미터급 LNG운반선의 이름을 '마리아

(Maria)호'라 지었다. 그리스 오션벌크(Oceanbulk)사는 1만 TEU급 컨테이너선에 유명화가인 세잔(Cezanne), 달리(Dali)의 이름을 붙이며, 옛 예술가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박 이름에는 삶의 목표가 새겨지기도 한다. 그리스 도리안(Dorian) LPG사는 지난 2015년 8만4천입방미터급 LPG운반선에 화합을 뜻하는 '콩코드(Concorde)호'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또, 미국 로완(Rowan)사는 끈기의 의미를 담아, 지난 2015년 건조된 드릴십을 '리렌트리스(Relentless)호'라 명명했다.

곽재구 시인은 포구기행이란 책에서 "선주들은 자신의 배에 어린시절 고향 동리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젊은 날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의 이름이나 술 이름을 적어놓기도 한다. 그 이름들의 의미를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한 포구가 지닌 그리움의 실체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은 정성껏 배를 지어 선주들에게 선박과 함께 낭만까지 선물하는지 모르겠다.

재미있는 선박의 이야기를 블로그
'hi,h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현중(重)에서의 소중(重)한 4주 “짧지만 강렬”

유난히 추웠던 겨울, 6명의 대학생들이 4주간 인턴실습을 진행했다. 서툴지만 뜨거웠던 이들의 좌충우돌 인턴생활을 전한다.

“처음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처음 겪어보는 회사 생활에 여섯 인턴들은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 직급 체계를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방법조차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우였다. 직원의 배려로 인턴들은 빠르게 부서에 스며들 수 있었다. 변예진 인턴(23세, 수출입지원팀)은 “입사 첫날, 선배님들과 회사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

요.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라고 말했다.

실습 2주차, 8시 출근이 익숙해질 즈음 울산 본사 견학을 다녀왔다. 난생 처음 본 조선소 야드 위 분주한 움직임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히 퇴근하는 오토바이 행렬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김양선 인턴(26세, 수출입지원팀)은 “사무실에서 배의 종류를 배울 땐 솔직히 그 규모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큰 배를 직접 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배를 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새로운 호기심도 생겼어요.”라고 말했다.

야드 투어 후 임직원과 인턴들의 만남도 있었다. 박진욱 인턴(26세, 인재채용팀)은 “임직원 분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



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인턴들은 4주동안 부서별로 기획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김양선, 변예진 인턴은 2018년도 물류 시장을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낯선 분야라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점점 흥미가 생겼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박진욱 인턴은 기존 인턴 프로그램의 보완책을 제안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신선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그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이일규 인턴(24세, IR팀)은 현대중공업의 단·장기 주력 선종을 예측해보았다. 그는 “초

반에는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부하면서 점점 흥미가 생겼죠. 짧은 인턴 기간이 아쉬울 정도예요.”라고 말했다.

두유진(24세, 홍보팀), 이현영 인턴(26세, 홍보팀)은 ‘인턴 간담회’를 주제로 사보 기사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했다. 두유진 인턴은 “제가 쓴 글이 현대중공업 가족에게 전달된다는 생각에 걱정 반, 설렘 반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이현영 인턴은 “지금 읽고 계신 이 기사는 저희가 쓴 거예요! 회사에 발자취를 남겼다는 것이 뿌듯합니다!”라고 전했다.

사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 보이지만, 4주간의 회사 생활로 열린 문 뒤를 조금이나마 본 이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현중(重)에서 얻은 소중(重)한 경험을 품에 안고 전진할 그들의 희망찬 미래에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

“동료들과 가슴 벅찬 순간을 함께 했어요!”

부서 내 젊은 피 5인방이 심기일전하여 뭉쳤다. 지난 2014년 순천 남승룡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마라톤에 입문하게 됐다는 강동원 대리(37세,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는 마라톤의 짜릿한 순간을 동료들과 공유하며 즐거움을 찾고 있다.

올해 3월 18일, 서울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평소 마라톤에 관심이 많은 4명의 동료들과 레이스를 준비했다. 이들은 대회 두달 전부터 단체 연습을 계획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최고의 컨디션과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대회 당일,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출발지인 올림픽공원에는 열정 가득한 러너들이 모여 분위기가 뜨거웠다. 준비운동을 마친 마라톤 5인은 ‘천천히 뛰더라도 절대 걷지 말자’, ‘결승선을 지났을 때 모든 힘이 고갈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과 함께 가슴 떨린 마라톤을 시작했다.

수많은 러너들 사이에서 빈틈을 찾아 속도를 내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설상가상 지속적인 오르막길로 앞서 뛰던 러너들 중 걸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강동원 대리도 처음의 다짐을 되새기며 걸어가고 싶은 욕망을 간신히 참아냈다.

절반 정도 달렸을 쯤 무릎은 아려오고 다리는 모래주머니를 매단 것처럼 무겁기 시작했다. 결승점에 가까워질수록 양 다리에 고통이 심해졌고, 걸음마다 관절 하나하나에 모든 충격이 새어 들어왔다. 하지만 강 대리는 죽을힘을 다해 수만 번의 걸음을 내디뎠다. 결승점으로 가는 길목에 양 옆으로 가득 메우고 있던 수많은 관중들을 보며 스포트를 올린 강 대리. 이윽고 ‘피니시(Finish)’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모든 고통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다고.

강동원 대리는 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달리는 행위 자



체는 혼자 하지만 훈련을 함께 하며 실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달리기는 어디서나,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운동”이라며, “평소 자신을 움아매던 잡생각을 떨치고,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마라톤을 마치면 한동안은 근육이 아파서 일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서 고생했다’는 생각은 든 적이 없다는 강동원 대리는 국내 메이저 풀코스를 완주

하고 세계 메이저 대회, 특히 뉴욕마라톤에 참가를 하고 싶단다.

또, 다른 동료들에게 마라톤의 즐거움을 전파해 함께 대회를 참가하고 싶다는 강 대리. 그의 멋진 바람이 이뤄지기를 응원해본다.



제3화

을(乙)들의 소곤소곤
“부장님 귀는 당나귀 귀!”

학창시절 학교 화장실에는 참 다양한 낙서가 존재했다.
단짝 친구를 놀리는 익살스러운 문구,
자신이 이 구역의 '김두한'임을 주장하는 결투 신청서,
옆 학교 영심이를 사모하는 애끓는 연애편지까지 장소가 주는
찝찝함을 이겨내고도 남을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넘쳐났다.
그 가운데 가장 '핫'했던 낙서는 바로 '강자에 대한 비판'과
'음담패설'이었다. 이런 주제의 글에는 금세 공감과 채팅의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대한 반박이 생겨났으며, 다시 이를 뒤집는 새로운 이론들이
탄생했다. 변기를 공유한 이들의 소통의 장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낙서의 양지화'를 이뤄냈다.



#1.

**익명의
가면이 주는
짜릿함**

직장인들의 익명 소통공간인 '블라인드'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블라인드란 국내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회사 정보 및 내부 문제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오른 당시에는 몇몇 회사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국내 여러 대기업을 비롯해 220여개의 회사 게시판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땅콩회항 사건’, ‘신입사원 성희롱 문제’, ‘기업 총수의 비리 사건’ 역시 이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최근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투 캠페인(Me Too,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림)’ 역시 익명 게시판의 도움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고 있다. 한 견에서는 요즘 기자들의 주요 취재원이 블라인드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다.

익명 게시판의 가장 큰 장점은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소연하기 좋다는 것이다. 친한 직장 동료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신기하게도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술술 털어놓게 된다. 익명이라는 가면이 주는 안전함과 짜릿함 때문이다.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업무용 보고서처럼 문맥이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주위의 평판을 걱정할 까닭도 없다. 그 글을 읽고 쓰는 모두가 직장인이기에 나의 이야기는 금세 우리의 이야기

가 된다. 이처럼 블라인드를 비롯한 온라인 익명 게시판은 통해 직장인들은 엄청난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을 홀로 힘겹게 간직해오던 이발사가 대나무 숲으로 뛰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쳤던 것과 비슷한 쾌감이랄까?

소곤거리는 소통이 수군거리는 뒷담화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익명의 가면은 불확실한 정보의 범람과 욕설, 성희롱, 마녀사냥 등의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열풍이 시작될 무렵, 익명 게시판은 '가즈아'의 외침과 비트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게시물로 도배됐다. 소소한 자랑과 후기를 나누던 글들은 어느새 투기를 종용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일부 제약 및 바이오주가 급등할 당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정보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소위 '작전세력'의 활동 외에도 '아님 말고'식의 불확실한 정보를 흘리는 무책임한 이들에 의해 선량하지만 귀 얇은 직장인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서울의 한 직장 여성은 새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익명게시판에 '셀소(셀프소개)글'을 올렸다가 성희롱을 당하기도 했다. 셀소글은 좀처럼 연애의 기회가 없는 직장인들이 연애 상대를 찾기 위해 익명게시판에 자기소개와 이상형 등을 함께 적어 올리는 글을 의미한다.

이 여성은 회사명 외에 이름도, 나이도,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댓글과 쪽지 등을 통해 각종 성적인 농담과 음담패설을 들어야 했다. 이 중에는 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 만남' 제의도 있었다. 자유로움을 선사하던 익명의 가면이 악당의 복면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없는 데서는 나랏님도 욕한다고 한다. 문제는 뒷담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거짓은 거짓을 부르고,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로 변하기 마련이다.

또한 기업의 대외비 자료나 허위 정보 등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유포됨에 따라 기술 및 영업 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역기능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바리케이드를 쳐두었지만, 이용자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한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익명 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곳이 사회적 약자인 을(乙)들이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이자 위안과 공감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중한 '익명의 소통 무대'를 지켜내고 싶다면, 우리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서로를 존중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자!

#2.

'익명'과 '악명'은 한 곳 차이

#3.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에서 치유의 공간으로



블로그 'hi,hhi'에서 직장인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新 직장인 생활백서'를 연재합니다

“함께 손잡고 웃다!” 장애인 재활 돕는 사랑의 손길

“자, 오른쪽으로 두 번, 박수 짹! 다시 왼쪽으로~” 신나는 음악 소리에 맞추어 율동을 하는 이들의 몸짓은 많이 불편해 보이지만, 웃음을 가득 머금은 얼굴에는 행복이 번져가고 있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우리 함께 해요’라고 새겨진 빨간 조끼를 입은 현중어머니회가 태연재활원을 찾는다. 울산 북구에 위치한 태연재활원은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190여명의 원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원생들은 장애 특성 및 등급에 따라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임직원 및 협력업체 부인들로 구성된 ‘현중어머니회’는 벌써 십 수년째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원생들과 일대일로 짝을 지은 회원들은 무대 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마주보고 함께 춤 동작을 익힌다. 원생들의 불편한 몸을 회원들이 옆에서 부축해주면서 1시간가량 즐거운 체육 수업이 계속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봉사자가 모든 것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돕는 것이 자립을 위한 재활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쾌한 춤으로 땀을 흘린 다음에는 스트레칭 위주의 요가

로 수업이 마무리 된다. 이후에는 대여섯 명씩 조를 나눠 게임을 하거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이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돌봄 봉사를 한다.

비록 완벽한 소통과 이해는 어렵지만, 원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임을 알기에 현중어머니회 회원들의 표정 또한 밝다.

식당에서는 몇 명의 회원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테랑 주부들답게 빠르고 야무진 손길이다. 정성과 수고로 차려진 한 끼의 밥상은 더욱 특별한 맛으로 원생들에게 전해졌을 것이다.

현중어머니회 정미애 회장은 “현재 회원 대부분이 50대 중반이어서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경우가 있다”며,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전통을 이어갈 30~40대 젊은 세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 태연재활원 봉사활동 참여 문의 노미영 과장(현대중공업 사회공헌팀)



월성 왕궁과 남산을 거닐었던 왕의 길이 복원되다!

경주시 교동 일원에 신라 왕족들이 머물던 월성 왕궁과 남산 사이를 가르던 물길을 잇던 다리, 월정교(月精橋)가 복원되어 올해 2월부터 관광객들에게 임시 개방되고 있다. 벚꽃이 흠날리는 경주에서 역사 속 신라시대 왕족이 된 듯 월정교에 발을 들여봤다.

월성은 경주를 흐르는 하천과 분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로, 모양이 반달을 닮았다 하여 반월성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제35대 경덕왕 19년(760년) 2월, 남쪽 문천(蚊川)에 월정교(月精橋)와 춘양교(春陽橋)를 놓았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출토된 유물을 오랜 시간 고증하여 천년 넘게 잠들었던 월정교의 모습을 드러냈다.

복원 이전엔 월정교의 터와 석축만 남아 있었다. 불에 탄 기와가 출토된 점을 봐서 지붕이 있는 목조 교각이고, 문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누각을 세우는데 왕궁과 연결된 다리로 방어에 무게를 두어 복층으로 복원을 했다. 10여년을 넘게 복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복측 문루의 현판과 2층의 월정교 유물 및 복원기념 전시장, 가교 주위 경관사업이나 조경 공사는 아직 정비 중이다.

월정교는 왕과 귀족들이 왕궁과 남산일대를 오가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에 잠겼을 사색의 다리다. 월정교에는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설화도 담겨 있다. 원효대사가 월정교를 지나며 요석공주와 인연이 되어 설총이 탄생한 일화가 교촌마을 곳곳에 언급되어 있다.

월정교로 들어서는 입구를 반기는 사자상 두 마리가 든든

하다. 사자상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색깔이 누런데, 이는 오랜 시간 물속에 잠긴 역사의 흔적이라고 한다. 월정교 북쪽의 입구와 남쪽의 입구에 세워진 기둥에서도 그 흔적을 하나씩 찾을 수 있다. 아울러 교각 난간 장식으로 사용된 연꽃무늬 금동장식에서는 신라시대 장인들의 손길과 숨결이 느껴진다.

월정교 남문에서 북문까지의 길이는 약 66미터이고, 폭은 9미터로 가장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두었다. 산과 하늘, 하천과 땅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과 자연을 동시에 수용한 공간 활용이 돋보였다.

월정교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주 교촌마을에는 찾아오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 천년 고도의 경주라 늘 관광객이 북적거리긴 하지만, 월정교의 남쪽과 북쪽 문을 이용하면 첨성대와 교촌마을, 향교나 월성을 왕처럼 누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월정교를 찾는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월정교의 매력은 다양하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첨성대 부근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비단벌레 전기자전거를 이용해도 좋겠다. 4월에 월정교를 걸으며 신라 천 년의 역사를 사색하고, 경주의 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경주 월정교

주소 경북 경주시 교동

개방 시간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무료 입장)



전통시장 부흥 이끄는 ‘매콤달콤 바비큐’

전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며 달빛이 가장 먼저 드는 월봉시장.

일산 바닷가를 어루만지며 번져오는 달빛이 유난히 부드러운 월봉시장에 새로운 먹거리 장소가 마련되어 야시장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냄새 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울산 월봉시장을 방문해보았다.



새롭게 태어난 월봉시장

월봉시장은 울산 산업화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던 사람들과 가족들의 생활을 담당했다. 이곳에는 텃밭을 일구어 가꾼 채소들이 담긴 소쿠리가 줄을 이었고, ‘담’이 있어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할머니들의 두터운 손이 쑥, 냉이, 달래를 듬뿍 봉지에 담아 줄 때면 아기 업은 젊은 새댁들의 저녁 식탁은 풍요롭기만 했다.

30년 넘게 한국의 산업화와 함께 하며 늘 담이 따라다니는 후한 시장으로 인기가 많았던 월봉시장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5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새롭게 태어났다.

시장 입구에는 붉은색 아치에 이름이 써져 있고, 안쪽 바닥에는 월봉을 모티브로 한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월봉시장에 가장 큰 변화는 ‘달’을 상징화 한 거리도 조성된 것이다. 크게 달빛 거리와 바비큐 거리로 나뉘는데, 달빛 거리는 바비큐 거리에서 시장 안쪽을 따라 화정6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이다.

이곳은 월봉의 달을 형상화한 조명 2개와 달 모양의 이미지를 비춰주는 ‘로고젝트’ 15개가 설치돼 있어 은은하게

바닥을 비춘다.

월봉시장 입구인 화정8길에서 시장 안쪽으로 60미터 구간에 조성된 바비큐 거리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일산조선해양축제, 옥류천, 큰마을 저수지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이 상영되고 있다.

아울러 고객 쉼터를 비롯해 수유실과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이 있어 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덜어 준다.

도심에서 즐기는 아웃도어, 바비큐 거리

달빛 바비큐 거리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바비큐를 월봉시장의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야시장 형태와 비슷하지만, 외부업체 없이 월봉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바비큐 개발부터 판매까지 한다는 점이 여타 시장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대왕암 공원과 일산해수욕장이 지척에 있어 울산 동구를 찾는 관광객의 입맛까지 고려해,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바비큐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봉시장 상인들이 노력하고 있다

‘달빛 바비큐 공동판매장’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구운 닭꼬치 순살구이, 통바비큐 삼겹살구이, 통바비큐 목살구이, 등갈비, 염통 꼬치구이 바비큐를 판매한다.

바비큐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월봉시장에서 공수해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한다. 심지어 바비큐에 들어가는 소스도 요리명장인 서정희 교수와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직접 개발했다고 한다.

월봉시장의 바비큐는 캠핑의 즐거움과 바비큐의 참 맛이 어우러져 있다. 달빛 아래 야외에서 즐기는 바비큐는 흡사 캠핑을 떠나서 고기를 구워먹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짐을 쌀 번거로움이 없는 캠핑이어서 더 좋다.

두툽한 통삼겹이 ‘지글지글’

달빛 바비큐 공동판매장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해서 받아온 바비큐를 들고 이동식 테이블이 일렬로 서 있는 거리에 간다. 바비큐 주문을 하면 기본으로 마늘 장아찌와 고추 장아찌가 나온다.

공동판매장에는 손님에게 나갈 구이들이 줄을 서 있다. 두툽한 통바비큐 삼겹살구이가 노릇노릇 익어가며 월봉시장을 들썩인다.

자리에 앉아 공동판매장에서 초벌로 구운 각종 바비큐를 전기 프라이팬에 조금씩 올려 구워 먹는다. 시장이라 깻잎, 상추는 바로 사서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음식이 생각나면 국밥, 칼국수, 추어탕, 보리밥 등을 주문해서 함께 먹

어도 된다. 달빛 바비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만날 수 있다.

울산 화정동에 사는 염승섭 씨(64세)는 “바비큐 거리가 생기면서 예전 왠지 낯익은 월봉시장의 모습이 살아나는 것 같다”며, “달빛 바비큐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월봉시장에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염통 꼬치구이를 집어 하나 먹어보라며, 건네는 그의 손길이 정겹다.

프라이팬에서 바비큐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다. 하루의 피곤도 달빛 바비큐 거리에서 녹아든다. 환한 달빛 아래 엄마, 아빠를 따라나선 아이들의 발걸음에도 달의 정취가 묻어 있다. 시장을 찾은 발걸음들이 개나리 가지처럼 가볍다.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울산 월봉시장 달빛 바비큐 거리

주소 울산 동구 화정8길 10
문의 052)251-1548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과 문화를 한 곳에!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해외 여행객 수는 2천649만명에 이르는데, 이중 3분의 1에 이르는 인원이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교통수단의 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망(SNS)의 확충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물리적·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수불가결해지고 있다.



부산 아세안문화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62

운영 시간 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문의 ☎ 051)775-2000

홈페이지 www.ach.or.kr

가까운 지구촌 이웃, '아세안'

요즘 TV를 켜면 한국인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외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언어는 물론, 식성이나 생활 방식까지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와 비슷해서 친근감이 들곤 한다.

비단 방송뿐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국제 결혼도 활발해지면서 우리 주위에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늘어나면서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졌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지난해 9월, 아세안문화원이 부산 해운대에 문을 열었다.

'아세안'이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말하는데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



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국, 약 6억5천만명의 인구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아시아 동북부에 위치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와는 지리상 가까운 지구촌 이웃이며, 약 30년에 걸친 꾸준한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지속시켜오고 있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세안문화원 입구에는 아세안 10개 국가의 국기들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었다.

오감으로 즐기는 아세안 문화

1층 정문에 들어서니 바로 왼편에 유적들을 생생하게 구현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VR실’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곳에서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미얀마 로카테익판 사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등 각국의 역사적 유물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대형 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다.

VR실 옆에는 전자 방명록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 전자패드에 손가락으로 글씨와 그림을 새겨 넣어 전송하면 기계 위에 달려있는 공 모양의 프린트기에서 바로 출력되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멋스러운 스탠드식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상설전시관 앞 ‘커뮤니티 홀’이 나온다. 바닥에 그려진 국가별 포인트에 올라서면, 화면으로 그 나라의 수도와 인구, 면적, 민족 및 종교, 언어, 우리나라와의 시차 등의 기본 정보를 보여준다. 예전에는 세계지리 교과서를 통해 무조건적인 단순 암기로 외웠던 내용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니 학습 효과도 클 것 같다.

한편, 2층 상설전시관에서는 회원국들의 역사와 문화, 풍습 등을 엿볼 수 있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세안문화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롯해



아세안연합 10개국의 언어로 쓰여진 환영 문구가 정겹다.

이곳에서는 각 나라의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수공예품과 화려한 전통의상, 도자기와 식기 등의 생활용품이 진열되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삶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모션 인식을 통해 가상으로 전통의상을 체험해보고, 사진 촬영 뒤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라오스 전시관과 광활한 풍경을 터치 스크린으로 색칠해 볼 수 있는 미얀마 전시관이 눈길을 끌었다.

도슨트 프로그램·스탬프 투어로 흥미 ‘Up’

아세안문화원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곁들인 도슨트 프로그램과 미션을 수행하고 확인 도장을 찍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 중이다. 황금의 나라 브루나이에서 배를 타보고, 말레이시아에서 그림자 연극을 관람해보자. 또, 아세안 아이템 퀴즈를 모두 풀면 1층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이곳에서는 매달 한 국가씩 지정하여 문화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음식 만들기 요리 체험 및 영화 상영, 강연 등 행사 참여를 원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각종 전시 및 체험 시설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 통로가 되고 있는 아세안문화원에서 자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인들도 고향이 그리울 때 이곳을 찾아 향수를 달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봄바람 타고 온 ‘빨간 맛’!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일 때 가끔 눈에 보이던 딸기가 제철을 맞아 여기저기서 무르익어가고 있다. 탱글탱글 빨갭게 익은 딸기를 한 입 베어 물면 달디 단 과즙이 흘러나오고, 입 안 가득 빨간 단맛이 코끝을 자극한다. 깊어지는 봄기운을 만끽하러 가족과 함께 딸기 농장으로 봄나들이를 가보자. 싱싱한 딸기를 직접 따서 먹기도 하고,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천연 비타민

빨갭게 익은 딸기는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새콤달콤하면서도 상쾌함을 품은 맛에 쉽게 질리지 않는 과일이다.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를 막아주고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

또한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자일리톨 성분이 있어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치주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섬유질 등 유용 성분이 다량 들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뿐만 아니라 엽산과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 임신 중 딸기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소염과 진통에도 효능이 있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우울증과 의기소침, 염증, 통풍 등에 딸기를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딸기 주산지로 논산, 진주, 밀양과 담양을 손꼽는다. 특히 담양은 자체 개발 품종인 ‘담향’과 ‘죽향’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과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 올해는 10여년의 연구 끝에 당도는 높고 쉽게 무르지 않는 ‘메리퀸’ 품종이 보급되어

딸기 주산지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딸기 산지로 유명한 지역답게 담양군 전역에서 딸기 농장을 쉽게 볼 수 있다. 3월부터 5월 말까지는 딸기 수확 체험을 하는 곳이 많아 곳곳에 딸기 행사장을 발견할 수 있다. 딸기를 재배하는 하우스마다 가족단위 체험객들로 북적이는데 그 중에서도 '혜화네 딸기하우스'를 소개한다.

새콤한 '딸기' 따며, 봄기운 충전!

체험 활동을 시작한지 올해로 3년이 되는 이곳은 시설이 깨끗하고 무엇보다 딸기 맛이 좋아 한번 다녀간 사람들의 재방문이 많은 하우스다. 친환경농법으로 천적을 이용해 토경재배를 한다.

작고 하얀 딸기 꽃이 올망졸망 피기 시작하면 비닐하우스 안 별통에 사는 수정별들은 분주히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며 수정을 돕는다. 자연의 힘으로 키워낸 딸기는 어린 아이들이 그 자리 앉아 바로 따서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

딸기가 익어가는 하우스 안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하다. 딸기 수확 체험을 시작하기 전, 꽃이 피고 과실이 익기까지 딸기의 한살이 과정을 간단히 배운다. 먹고 가는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레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된다.

혜화네 딸기하우스에서는 딸기 따기, 딸기젤리 만들기, 딸기잼 만들기 등 총 3가지 체험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굳는 시간이 필요한 딸기젤리 만들기를 가장 먼저 한다. 따뜻한 물에 젤라틴을 휘휘 저은 뒤 딸기를 먹기 좋게 썰어서 통에 담고 냉동실에 넣어 두면 시중에서 파는 젤리와는 다른 신선함이 가득한 젤리가 완성된다.

젤리가 굳는 동안 딸기 수확 체험을 실시한다. 딸기는 과육이 짓무르지 않게 검지와 엄지로 브이(V)자를 만들고 두 손가락을 줄기 사이로 넣고 아래로 가볍게 톡 찍어 따낸다. 처음이라 어설퍼던 손놀림은 딸기를 몇 개 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진다. 주인장이 알려준 대로 꼭지가 하늘을 향해 있는 잘 익은 딸기를 골라 한 손으로 감싼 다음 딸기를 따면 '톡' 하는 경쾌한 딸기 방귀소리가 난다.

'톡' 하는 싱싱한 방귀소리가 클수록 단맛이 가득하다. 여기



저기서 울려 퍼지는 딸기의 달콤한 방귀소리는 마치 딸기의 노래처럼 들려 체험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 바로 따서 한 입 베어 문 딸기는 수분과 단맛을 적당히 머금어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딸기 수확 체험 후에는 따로 준비해둔 딸기로 달콤한 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 먹고, 딸기잼 한병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다. 딸기잼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놀이도구와 딸기에 관한 동화책이 마련돼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체험비는 1인당 6천원에서 8천원이면 유아부터 성인까지 실컷 딸기를 따서 먹고, 500그램(g) 딸기 한 팩을 가져갈 수 있다. 또, '딸기젤리 만들기'는 1만원을, '딸기잼 만들기'는 1만2천원을 추가하면 된다. 딸기의 생육 상태가 날씨에 따라 다르고, 단체손님이 다녀간 후에는 딸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 딸기 수확 체험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예약은 필수다.

취재 주경미 현대삼호중공업 주부리porter

혜화네 딸기하우스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0-5번지

체험비 성인 8천원, 유아 6천원 등

문의 010-9366-4716

여기에서도 딸기 수확 체험할 수 있어요!

·열매네 딸기밭 (강진군 도암면 덕년리 758-8, 010-2434-3826)

·상상농원 (보성군 조성면 봉능리 474-5, 010-6727-3032)

·나리농원 (울산시 북구 창평동 1210번지, 010-4411-0459)

짧은 이 봄 가기 전에 마음껏 누려요~!

벚꽃의 만개와 함께 봄은 점점 북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름드리 나무에 수천 수백 송이 꽃이 흐드러진 풍경,
그 자체만으로도 흐뭇한 미소를 담게 된다.
따스한 봄바람을 맞으며 살랑대는 꽃 가지를 보러 나들이에 나서보자.



경주 벚꽃축제

벚꽃을 소재로 버스킹, 운동회 등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이 열린다.

기간 : 4월 7일(토) ~ 4월 15일(일)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38 보문관광단지 및 황남동 대릉원 일원

요금 : 무료



대구 이월드 별빛꽃축제

국내 첫 번째 벚꽃축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야간에 열린다.

기간 : 3월 24일(토) ~ 4월 8일(일)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이월드 83타워 전역

요금 : 야간자유이용권 성인 2만5천원, 청소년 및 어린이 2만3천원 등



섬진강변 벚꽃축제

우리나라 제일의 청정 하천인 섬진강변에서 아름다운 장관을 만날 수 있다.

기간 : 4월 7일(토) ~ 4월 8일(일)

장소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요금 : 무료



석촌호수 벚꽃축제

벚꽃이 어우러지는 석촌호수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거닐어보자.

기간 : 4월 5일(목) ~ 4월 13일(금)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148

요금 : 무료 (단, 일부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있음)



화개장터 벚꽃축제

일명 '흔레길'로 불리는 십리벚꽃길을 연인과 함께 걸어보는건 어떨까?

기간 : 4월 7일(토) ~ 4월 8일(일)

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맥전길

요금 : 무료

형형색색
'튤립'도 활짝 피어나요!



순천만국립공원 봄꽃축제

"정원에 놀러와(play in the garden)"라는 부제로 열리는 봄꽃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은 벚꽃, 튤립, 유채, 철쭉, 작약, 장미 등 250종의 봄꽃과 다양한 퍼포먼스,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기간 : 4월 6일(금) ~ 5월 22일(화)

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국립공원 1호길
47 순천만 국립공원 동문일원

요금 : 성인 8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4천원, 7세 미만 무료



태안 세계튤립축제

2015년에 이어 2017년에도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선정된 태안 세계튤립축제는 "꽃으로 물든 바다, 대한민국이 빛난다"라는 주제로 축제를 연다.

기간 : 4월 19일(목) ~ 5월 13일(일)

장소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 꽃지 해수욕장

요금 : 성인 1만2천원, 경로 1만원,
청소년 9천원



환자 스스로 존엄한 삶 마무리할 권한 생겼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무의미한 생명 연장 대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석달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 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간경화 등)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 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생명 유지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최근 언론 등에서 말하는 ‘웰다잉’, ‘존엄사’와 같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생을 미리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희생이 불가능하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미 없이 각종 연명장치를 이용하여 생을 연장시키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존엄사’와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존엄사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웰다잉’은 안락사나 존엄사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며 안락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에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으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작성된 자료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연명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울주군 상북면 소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만일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환자도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불가능하다면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많은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문의는 꾸준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21건으로, 신청자는 모두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성별은 남성이 8건, 여성이 13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60대가 13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종 보완될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세종은 연명의료중단 가능 병원이 없고, 제주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이 가능토록 하는 것도 보완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향후 여타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담당하는 전담인력과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 김신재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



서로 다른 우리가 조화롭게 사는 법

다양한 인종을 품에 안은 뉴욕의 4월은 같은 날씨 속에서도 각양각색의 옷차림이 펼쳐진다.

반바지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피를 입고 몸을 감싸는 사람도 있다.

같은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개인의 체감에 따라 각각 다른 옷차림으로 뉴욕의 봄을 맞이한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른 기질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며, 다르게 길러지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다름’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고 비난하며 상처받을 때가 있다.

나의 ‘다름’에 대한 이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된다. 우리가 가진 역할에 대해서는 소개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고유함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다름’을 가지고 있다. 나만의 ‘다름’은 나의 성격적인 특성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다.

다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행동과 특성을 보이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한다. 자신을 이해할 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다름 1. 에너지의 방향

사람들 간의 다름을 만들어 내는 첫 번째 차이는 외향형과 내향형의 성격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외향형 성격의 사람들은 외적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거나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활력이 넘친다. 반면에 내향형 성격의 사람들은 혼자 음악을 듣거나 차분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내적인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에너지를 보충한다.

외향형 스타일의 사람들은 매우 빠르고 적극적이며, 주변의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내향형 스타일의 사람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행동은 느리지만 완벽한 일 처리에 강하고,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경향을 갖고 있다.



외향형이 내향형을 대할 때

- 겉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이 안에 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 하자.
-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주제씩 대화해 보자.
- 중간 중간 쉬거나 기다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주자.

내향형이 외향형을 대할 때

- 혼자 생각을 다 끝낸 후에 표현하지 말고, 과정을 말로 표현해 주자.
-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자. 어떤 때에는 불필요한 생각들도 많다.
- 내 기준보다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해 보자. 훨씬 잘 전달된다.

다름 2.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의 여러 사물과 사건들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른 시각의 차이로 실제형과 직관형이 있다. 흔히 실제형 사람들이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직관형 사람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실제형의 성격은 문제가 생기면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자 하지만, 직관형들은 구조나 체계상의 문제들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보일 수 있다.

실제형이 직관형을 대할 때

- 말할 때 큰 범주부터 언급한 다음 세부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
-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자.
- 미래 가치와 현실적 가치를 구분해 균형 있게 생각하고 고려해 보자.

직관형이 실제형을 대할 때

-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예를 많이 들자.
- 건너뛰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 상상의 결과와 실제의 구체적인 사건을 구분해 이야기하자.

다름 3.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객관적이고 나름대로의 논리와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만, 감정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고형이 감정형을 대할 때

- 상대방의 말을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의 의견으로 보자.
-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자. 냉정해 보이는 것을 보완해 준다.
- 상대방의 말을 따라가면서 상황에 따른 감정을 생각해 보자.

감정형이 사고형을 대할 때

- 가능한 미리 정리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하자.

다름 4.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 간의 다름을 만드는 네 번째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획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형 성격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의 계획과 통제 속에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생활한다. 반면 자율형 성격의 사람은 순간순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생활하고자 한다.

계획형의 사람들은 미리 준비하면서 완벽한 계획표를 짜지만, 자율형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일단 수립된 계획도 상황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둘 중 어떤 방식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계획형은 자율형을 대할 때

- 자신의 틀과 계획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자.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자율형이 계획형을 대할 때

-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자. 처음에는 혼자 속으로만 하고, 나중에는 행동으로 실천하자.
-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시작하자. 미리 준비하거나 미리 도착하는 것도 즐거운 구석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자신과 다른 타인의 방식에 대해 '네 생각은 틀려'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랑 참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다른'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글 이현주 상담사 (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세 번의 암 수술도 이겨낸 ‘오뎅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고도 태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늘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져 좌절하기 쉬운 게 보통이다. 그러나 정선정 씨는 가족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세 번의 힘든 암 수술을 견뎌내고 완치가 되기만을 희망하고 있다.

가난한 삶에 느닷없이 찾아온 병마

경남 거창이 고향인 정선정 씨(54세)는 6남매 중 셋째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중단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열일곱살에 돈을 벌러 집을 나왔지만 선정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끼우고, 파출부, 식당 일을 전전하며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딱 혼자 지낼 만큼의 생활비만을 벌 뿐이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부모 형제들과의 갈등이 심해져 가족들과 왕래하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생활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떠돌다 2001년 서부동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울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식당에서 8년 넘

게 일하며 성실함을 인정 받았고, 주변의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몸을 사리지 않고 내 일처럼 도우며 이웃들과도 잘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여름, 선정 씨는 식당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평소 빈혈 증상이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이후 심한 하혈과 계속된 혈변으로 동네 외과를 찾았다가 검진 중에 직장암과 폐암이 동시에 발견됐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지만, 원망할 틈도 없이 치료를 위한 수술비 마련이 더 큰 걱정이었다.

살고 있던 작은 방 한 칸의 전세금과 얼마 되지 않은 저축이 모두 수술비로 들어갔고, 앞으로 계속될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일했던 식당 주인(김경자 씨, 74세)이 감사하게도 병들고 갈 곳 없는 선정 씨에게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살자며 손을 내밀어 줬, 현재는 김경자 씨와 함께 지내고 있다.

병원에서 얻은 ‘괴물’이란 별명

정선정 씨는 작년 9월 폐의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고, 직장암 수술을 위한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갑상선암이 발견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무서운 암이 세 개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선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다.

폐암 수술을 받은 지 넉 달 만인 지난 1월에 직장암 수술을 받고, 다시 10일 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연이은 수술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선정 씨는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견기 위해 이를 악물며 연습했다고 한다.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지만 억지로라도 먹고 기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었다.

이런 악착같은 선정 씨를 보며 같은 병실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그녀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그녀가 온 몸으로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모습이 그들에게는 괴물과 같이 보였으리라.

삶에 대한 간절한 희망, “평생 은혜 갚고 살게요”

“빨리 건강해져서 식당 일을 돕고 싶어요. 아프고 지낼 곳 없는 저를 흔쾌히 받아주고 하루 세끼 신경 써서 챙겨 주는 큰언니 같은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병이 다 나으면 식당 일을 열심히 돕고 평생 은혜 갚으며 살고 싶어요.”

암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대단한 선정 씨는 투병 중인 환자가 맞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밝고 차분하며 긍정적이다. 오래 전 맺은 인연으로 선정 씨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함께 지내고 있는 김경자 씨에게 꼭 빚을 갚고 싶다는 선정 씨.

김경자 씨는 “식당을 하니 밥은 늘 있는 것이고, 있는 밥 나누는 것 뿐”이라며, 그녀의 선행이 별 일 아니라는 듯 손사래를 친다. 그리고 선정 씨의 두 손을 꼭 잡고 빨리 낫기만 하라고 당부한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경자 씨가 있어 선



정 씨가 절망하지 않고 힘든 치료 과정을 묵묵히 잘 견뎌내고 있는 듯하다.

정선정 씨는 직장암 수술을 받은 뒤 배변주머니인 장루를 달고 생활한다. 세 번의 암 수술과 28번의 방사선 치료, 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4번의 항암 치료가 더 남아 있다. 치료가 있는 날이면 부산 기장 원자력병원 암센터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가, 2박 3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는다. 선정 씨는 남은 4번의 치료로 병마와의 악연을 끝낼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불안정한 주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씩씩하게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고 있는 선정 씨. 그녀가 누구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전념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그녀의 바람대로 ‘받은 것 이상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취재 정은주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도움계좌

새마을금고 9003-2358-3075-9 (예금주 정선정)

일단 체크인하면, 실 새 없이 터지는 웃음폭탄!

Synopsis

호텔에 체크인하고 들어선 여당 국회의원 '리처드'와 야당 총재비서 '제인'. 어렵게 성사된 만남의 기쁨을 나누려던 순간, 난데없이 발코니 창에 엮여 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된다. 부적절한 관계가 들킬까 싶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 점점 꼬여만 가는 상황 속, 리처드의 부인 '파멜라'와 제인의 다혈질 남편 '로니'까지 호텔방에 등장하게 되는데...

관람후기

- “단순하지만 깊게 웃긴 연극! 죽도록 웃기면서도 풍자의 느낌이 담긴 듯한 연극이었어요.”
— yesyear**
- “오랜만에 웃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깨알 같은 윗트와 재치, 즐거운 연극으로 기분전환 되었습니다.”
— loads**

관람정보

일시 4월 12일(목) ~ 28일(토)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휴관)

장소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티켓가 전석 2만5천원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대학로 명품 코미디 연극 '룸넘버13'이 약 2주 간 현대예술관 소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국민 연극 '라이어'를 탄생시킨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쿠니(Ray Cooney)'의 야심작인 이 작품은 현재 전세계 40여 개국에서 상연 중으로, 영국 최고 권위의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 수상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극 '룸넘버13'은 여당 국회의원 리처드와 야당 총재비서 제인의 불륜 스캔들로 인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다.

견잡을 수 없는 상황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두 사람의 거짓말과 급박한 상황 전개는 공연 내내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특히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풀어나가기 위해 펼치는 기교와 재치가 압권이다.

풍자의 요소가 강한 정치 코미디로서 기존 연극과는 차별화된 통쾌한 웃음을 전하는 연극 '룸넘버13'!

짜임새 있는 극본과 생동감 넘치는 배우들의 연기 속에서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원작!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관람후기

• “지름 1미터의 풍선들에 영상을 쏘며 바닷속 풍경을 빚어내고 객석에서도 파도 놀이가 펼쳐진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 재즈로, ‘떴다 떴다 비행가~’가 랩으로 불리는 등 동요 20여곡이 친근하다.”
— 조선일보

•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관객인지 모를 정도다. 좋은 추억이 아닐 수 없다.”
— 중앙일보

• “올해는 더욱 화려해진 무대와 볼거리로 동심을 사로잡고 있다.”
— 뉴시스

관람정보

일시 5월 3일(목) ~ 5일(토) 평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5시
장소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티켓 1층석 2만5천원 / 2층석 1만5천원
문의 현대예술관 (☎1522-3331)

전세계 2천500만 어린이를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원작의 뮤지컬 '무지개물고기'가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물들인다.

거대한 물방울 풍선과 실감나는 물고기 의상 등으로 신비로운 바닷속 세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웰메이드 뮤지컬이다.

평소 물건을 나눠 쓰기 싫어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비밀의 문을 통해 바다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의 '무지개물고기'. 극을 통해 나눔과 화합의 중요성을 이야

기하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전한다.

특히 배우가 객석으로 나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재즈아카펠라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 동요를 만날 수 있어 어린이 관객뿐만 아니라 어른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무지개물고기'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보자.

흥겹게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굿 바이’!

어르신들의 목은 스트레스와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특별한 강좌가 있다.

8년 전에 개강하여 한마음회관 대강당을 수요일마다 들썩이는 노래 교실은 한 수업에 평균 3~4백명의 수강생이 몰릴 만큼 인기 강좌로 자리 잡았다.

중장년층에게 큰 인기몰이

‘7번 국도’, ‘내일 다시 해는 뜬다’, ‘나그네’ 등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친숙한 7번 국도에 대한 가사나 누구나 아는 트로트 등 삶의 희노애락이 담긴 노랫말에 쿵쾅쿵쾅 신나는 음악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귀를 쫓긋 세우게 한다.

남녀 구분 없이 5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강좌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두 타임으로 진행되며 수업은 1시간 20분 가량 이뤄지고 있다.

보통 개강 첫날 새로운 교재를 받아 들고 한 곡씩 노래를

배우는데, 대부분이 오랫동안 수강한 분들이라 70~80년대에 인기를 얻었던 대중가요나 신나는 리듬의 트로트는 이제 국내에서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라 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목청껏 소리 높여 노래 부르는 순간, 스트레스나 걱정거리는 잠시 저편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인지 수강생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고 발랄하며, 목소리는 경쾌하다.

노래에 토크 접목, 특별한 재미 선사

강의는 8년 동안 꾸준히 정혜인 강사가 ‘토크 in 가요’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혜인 강사는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한 적 있고, 현재는 울산교통방송 '행복충전소'와 부산교통방송의 '달리는 라디오' 그리고 창원의 교통방송 등에서 MC로 맹활약하고 있는 스타 강사다.

강의 제목처럼 노래 부르는 중간 중간에 이야기가 어우러져 한층 재미를 더한다. 최근의 사회 이슈나 일상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맛깔나게 풀어내면 강당은 금방 웃음소리가 가득해진다. 어르신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사 상식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풍부한 성량으로 노래를 이끌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소소한 일상들을 공유하다 보면, 신이 나신 일부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기도 하고, 무대 앞으로 나가 흥을 돋워 강당 전체가 잔칫집 분위기가 된다. 오래된 수강생들이 많은지라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들도 복습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토크 주제와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것들로 곡 선정을 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음악이론 수업도 빼놓지 않는다. 악보를 보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간단한 음악이론이나 악보 보는 법 그리고 발성법도 함께 지도하고 있다.

수업시간 간간이 옆에 수강생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는 등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며 친목의 시간도 갖는다. 간단한 체조를 하고 나면 노래와 율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몸짓이 한결 가벼워진다.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정 강사는 “노래를 통해 마음의 위안이 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며, “학생이 많아도 지난 주에 누가 오지 않았는지 다 알 정도로 수강생들과 친숙하게 지낸다”고 말했다.

살뜰히 챙기는 정혜인 강사 덕분에 멀리서도 찾아오는 수강생이 많다. 울산 북구 정자동이나 무거동, 경북 건천으로 이사를 간 수강생도 빠지지 않고 매번 강의에 참석한다. 간혹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수업을 듣고 싶어 외출증을 끊어서 잠시 다녀가시곤 한다.



정 강사는 원래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노래에 대한 미련과 열정이 계속 남아 마흔 살이 되던 무렵 서울의 유명 작곡가로부터 사사를 받고 직업을 바꾸었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신이 난 모습이라 보는 사람도 신이 나는 것 같다고 덧붙인다.

8년 전부터 꾸준히 수업을 들어온 이종숙 씨(67세)는 “강의가 너무나 즐거워 스트레스 푸는데 이만한 게 없다”며, “친구들과 함께 와서 노래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일주일 이 금방 가서 아파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 정도로 기다린다”고 전한다.

4년 전부터 강의에 등록했다는 김정숙 씨(70세)도 “노래 듣고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노래 교실을 많이 다녔었는데, 분위기가 좋고 편해서 이제는 한마음회관 노래 교실만 다니고 있다”고 어깨를 으쓱한다.

많은 수강생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즐겁게 노래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는 노래 교실에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길 바란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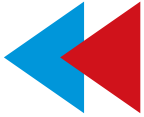


‘정혜인’의 노래 교실

장소 한마음회관 1층 극장

강의 시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수강료 2만1천원/3개월 문의 ☎ 052)209-7900



“비교는 거부한다!” 역대급 영웅과 초대형 괴수의 등장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장르 액션, 모험, 판타지, SF **개봉일** 4월 27일 (금)

감독 안소니 루소, 조 루소

출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조슈 브롤린, 마크 러팔로, 톰 히들스턴,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헴스워스 등

줄거리 우주 최강의 위력을 지닌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려는 악당 타노스를 막기 위해 어벤져스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뭉쳤다. 세계의 운명을 건 무한의 대결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볼거리 TOP3

01 영웅 총출동!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마블 히어로 총출동 예고

02 최강 스케일!

캐스팅, 전투 등 전무후무한 스케일, 전세계 최고의 기대작

03 신규 스토리!

히어로 작별 예고부터 러브라인까지 흥미로운 스토리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4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11년간 18편의 영화로 전세계 흥행 수익 146억 불, 대한민국 총 관객 약 8천400만명의 대기록을 수립한 마블 스튜디오의 10주년 야심작으로, 메인 캐스팅만 31명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대작이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등은 물론 스파이더맨, 앤트맨, 블랙 팬서, 윈터 솔저,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모두 출연하여 마블 세계관의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어벤져스(2012)'에서부터 등장을 암시해 온 최강의 적 '타노스'에 맞서 전쟁을 예고한 히어로들! 반가운 얼굴들이 모여 펼쳐는 화려한 승부, 그 짜릿한 긴장감을 놓치지 말자.

새로 개봉하는 따끈한 신작 영화를
블로그 'hi,hhi'와 현대예술관에서 만나보세요.



램페이지 (Rampage)

장르 액션, 모험 **개봉일** 4월중

감독 브래드 페이튼

출연 드웨인 존슨, 제프리 딘 모건, 나오미 해리스, 말린 애커맨 등

줄거리 고릴라 '조지'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어 온 동물학자 '데이비스' 순하고 영리했던 '조지'가 어느 순간 거대하고 난폭한 괴물로 변해버리고, 나아가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변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거대 몬스터들이 도시를 무자비하게 파괴하기 시작하고, 이를 막기 위해 데이비스는 몬스터들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불거리 TOP3

01 추억의 게임!

1980년대 인기 아케이드 게임 '램페이지'를 영화화한 작품

02 괴수의 등장!

도시를 파괴하는 거대 괴수들의 상상초월 광란의 액션

03 생각할 거리!

인간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재난! 의미 있는 문제 제기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게임 속 모든 것들을 파괴하며 레벨을 올리던 추억의 동명 아케이드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램페이지(Rampage)'가 4월 극장가를 찾아온다. '광란'이라는 뜻에 걸맞게, '램페이지'는 사상 최대 사이즈를 지닌 괴수들의 광란을 완벽하게 그려낸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다.

인간의 욕심에서 발생한 유전자 이상으로 거칠어진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혹성탈출'과 '쥬라기 월드'를, 괴수의 거대한 사이즈는 '킹콩'과 '공: 스컬 아일랜드'를 연상케 한다.

도시를 파괴하는 괴수들과 그를 막으려는 인간들의 노력, 그 아찔한 전투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다.



시즌권이 맺어준 조수혁 선수와 아이들의 인연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を 축하합니다”

추위가 한결을 물러나고 봄기운이 완연했던 지난 3월 2일,
울산현대축구단 선수들이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울산
동평초등학교와 양사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울산현대가 쓴다! '입장권' 입학 선물

이날 김수안 선수와 함께 동평초등학교를 방문한 울산현대 골키퍼 조수혁의 감회는 남달랐다. 조수혁 선수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입학식 때가 새록새록 기억나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왔다는 마음보다 오히려 제가 힘을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 뜻깊은 하루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울산현대축구단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울산 지역 신입생 1만1천여명 전원에게 2018시즌 울산현대축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10회 입장권'을 선물했다. 또, 2~6학년 학생들에게는 1만원 할인된 금액에 시즌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시즌권 수익 전액은 학교발전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날 동평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도 축구단이 준비한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동평초등학교는 6학년 학생들이 신입생에게 선물을 걸어주는 행사를 입학식마다 진행했다.

이를 지켜보던 조수혁 선수는 신입생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50명 남짓의 6학년 학생들에게도 시즌권을 선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조수혁 선수와 동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

문수구장 찾아 열띤 응원 펼친 아이들

이 날 맺어진 인연은 지난 3월 10일 문수경기장에서 펼쳐진 상주상무와의 '2018 K리그 홈 개막전'까지 이어졌다. 14명의 동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개막전을 앞둔 경기장을 깜짝 방문한 것이다.

아이들은 먼저 문수구장을 찬찬히 둘러보고 다양한 행사 부스를 찾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디선가 풍선으로 만든 칼, 왕관, 강아지 등을 하나씩 가지고 돌아오는 아이들도, 솜사탕을 받아와 친구와 나눠 먹는 아이들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모이자 스타디움 투어가 시작되었다. 이날 첫 선을 보인 울산현대축구단의 UHTV 라이브 현장을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푸는 선수들을 멀찍이서 바라보기도 했다.

문수구장을 처음 방문해본 아이들은 어느 유니폼이 울산현대 선수들인지 모를 정도였다. 개중에는 축구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 투어가 진행되는 중에도 한 마디씩 거들면서 깨알 같이 '축덕(축구 덕후, 축구에 폭 빠져 열중하는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원정석을 끝으로 스타디움 투어를 마친 아이들은 상주상무와의 리그 홈 개막전을 기다렸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드디어 경기장에 이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은 조수혁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관중석으로 향한 그는 경기장을 찾아준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사인볼을 추가로 선물하며 훈훈한 장면을 만들었다.

축구에 관심 없는 아이들도 유명 축구선수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자 신기한 듯 연신 조수혁 선수를 쳐다보았다. 이전부터 울산현대를 응원해 온 한 학생은 새삼 떨리는 표정으로 조수혁이 전해주는 선물을 받았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방문한 동평초등학교 이기호 교장은 “조수혁 선수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타디움 투어 전까지만 해도 울산현대나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한 아이들의 눈에 어딘지 모르게 축구에 대한 선망의 눈빛이 뒤섞여 있었다. 시즌권 선물로 맺어진 인연이 훗날 어떤 만남과 결과를 만들어 낼지 궁금해지는 순간이었다. 울산현대 선수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문수구장에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려 퍼졌다.

글 울산현대축구단 프렌즈 5기 김예은, 사진 울산현대축구단

※ 옴로 :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의미로 진정한 가치에 충실한 태도를 강조함.



‘워라벨’과 ‘옴로’를 외치는 밀레니얼 세대



1985년부터 1999년에 태어나 21세기를 어릴 때 맞이한 Y세대가 서서히 사회와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기성세대와 다른 소비 패턴과 새로운 성향을 가진 이 세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까?

밀레니얼 세대 또는 Y세대로 불리는 이들(올해 19세~33세)은 미래의 소유를 위해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안정한 그대로를 수용하고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돈보다 스트레스 제로를 추구한다.

지금 40대의 주축을 이루는 기성세대(X세대)는 조직에서 서열 및 상명하복의 전통적인 문화를 대체로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이들은 가정보다 직장이 우선이고, 사생활은 회사생활을 위해 포기했다. 수시 야근을 당연시 하고, 저녁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여기고, 결혼과 자녀 교육, 집 장만을 위해 아끼며, 부모 부양을 신경 쓰던 이들에게 워라벨과 옴로를 외치는 Y세대는 조금 낯선 존재들이다.

Y세대는 수직적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직급·경력·나이보다 실질적인 탁월함을 중요시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제시하길 원한다. 또한 이들은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퇴근 후의 시간을 오늘의 행복을 찾는 시간으로 생각한다. 미래의 가치보다 현재의 경험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한다.

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는 집이나 차를 장만하기 보다 여행, 공연 등 즐거운 경험에 투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덕질’을 즐긴다. 이들은 소비의 중점을 ‘소유’에서 ‘경험’으로 바꾼 첫 세대다.

한편, 1천만명이 넘는 한국의 Y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첫 번째 자녀 세대다. 부모세대가 가난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탈출하기 위해 집 한 채를 가지는 게 삶의 목표가 됐다면, 이 세대는 집과 차는 물론이고 과시를 위한 소비, 소유하기 위한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보다 공유를 지지하게 되고, 물질보다 경험에 가치를 두게 된다.

기성세대 중에는 옴로를 오늘만을 산다며 대책 없이 소비하는 행태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옴로의 본래 취지는 여행이든, 덕질이든, 저녁이 있는 삶이든 자신만의 가치관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 만족적이며 실용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집과 직장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이며, 결혼해서 안락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행복한 삶의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이들 세대는 과거처럼 획일적 가치에 매달리거나 집단적 사고에 함몰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길을 가기에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는 의미가 없다. Y세대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고, 더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참고 도서 「라이프 트렌드 2018」, 김용섭 저
「트렌드 코리아 2018」, 김난도 외 저

질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과장은 다용도실 쪽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위층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물이 새니 빨리 수리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과장이 퇴근하고 보니 천장에 물이 새서 부엌에 있는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 가전제품들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위층 임차인은 화가 난 한 과장에게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이 터져서 발생한 다용도실 누수로,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차일피일 수리를 지연하여 부엌까지 물이 섰다며, 자신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 과장은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답변

수도배관 파열로 인하여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에는 공작물 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에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73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에 관해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파손 또는 장애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과장의 사례를 살펴 봅시다. 위층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자신이 점유하는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발생한 누수는 위층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파열로 생겨서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므로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상 수선 의무에 따라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정도의 파손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으로는 누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다용도실 바닥 내부의 숨은 하자를 예견하여 방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과장은 임대인인 집주인을 상대로 부엌 가전제품과 누수 자체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02)746-4667

정주영 창업자 17주기 추모행사

현대중공업은 3월 21일 정주영 창업자의 17주기(周忌)를 맞아 고인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갖고,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아침 현대중공업 본관 로비의 정주영 창업자 흉상 앞에서 권오갑 부회장, 강 환구 사장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및 분할회사 임원들과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창업자의 흉상에 헌화한 뒤 묵념하며 고인의 높은 뜻과 창업정신을 기렸다. 또, 아침 8시에는 사내방송을 통해 특별 추모영상이 방영돼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과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 전인 20일(화) 저녁에는 현대예술관 대공연장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과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음악회'가 열려 창업자의 애국심과 도전정신을 기렸다.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현대중공업이 3월 29일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유국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유국현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재선임됐다.

또, 권오규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前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됐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5개 안건이 가결됐다.

이날 발표된 영업보고(별도기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0조7천58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했다.



사우디 슈웨이크 발전소 ‘완공증명서’ 획득

현대중공업은 3월 15일과 16일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 중인 슈웨이크(Shuqaiq) 화력발전소의 연속 최대출력 테스트(TMCR)를 무결점으로 마치고 발주처인 사우디 전력공사(SEC)로부터 공사완공증명서(PAC, Preliminary Acceptance Certificate)를 받았다.

지난 2013년에 수주한 슈웨이크 발전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홍해 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2천64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 최대 규모의 발전소다.

특히 초임계압(超臨界壓) 보일러 적용으로 발전효율을 극대화해 발주처인 SEC로부터 사우디 최고 발전소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플랜트사업부문은 향후 신뢰성시험 등을 거쳐 공사의 최종 종료를 의미하는 최종승인증명서(FAC)도 기간 내에 받을 계획이다.





엔진 진단기능 고도화 추진

현대중공업은 최근 스위스 빈터투어 가스엔디젤(WinGD)사와 '선박 엔진 진단기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선박 솔루션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개발한 통합스마트선박솔루션 ISS(INTEGRIT-Smart ship Solution)에 WinGD의 엔진진단시스템(EDS) 및 엔진데이터수집장치(DCM)를 연계해 선박 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고장진단, 원격 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선주들은 항해사의 숙련도, 경험 등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운항법을 표준화하고, 운항에 가장 핵심적인 엔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분석·진단함으로써 한층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운항관리체계 디지털화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하는 '이네비게이션(e-Navigation)' 움직임에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혼합냉매 완전 재액화시스템' 실증설비 구축

현대중공업이 최근 LNG선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재액화하는 '혼합냉매 완전 재액화(SMR, Single Mixed Refrigerant)시스템' 실증설비를 중화연구동 인근에 구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승인을 획득했다.

SMR은 영국의 가스처리엔지니어링 업체인 LGE(Liquid Gas Equipment)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로, 세계 최초로 혼합냉매를 이용해 LNG 운반선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재액화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16년에 선보인 단일냉매 재액화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효율을 최대 40%까지 높였으며, 설비 규모를 줄이고 조작 편의성을 개선했다.

현대중공업은 실증설비를 통해 선박 운항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도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선박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한 안전' 실천 선포

현대중공업이 공정한 안전 실천을 통해 기본과 원칙의 안전문화 정착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3월 21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증진센터 대교육장에서 안전 부문 임직원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안전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공정한 안전'은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흔들림 없는 표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중대한 과실 및 고의적인 위반은 용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 안전경영실 임직원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일관된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현대중공업은 향후 안전요원들의 '공정한 안전 실천 서약서' 작성, 공정한 안전 실천 교육 및 관련 행동규범 제정 등을 통해 공정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제4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3월 28일 한우리회관 대강당에서 주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44기 재무제표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발표된 영업보고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매출 2조 4,534억여원, 영업이익은 1,079억여원을 기록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한편, 한영석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영환경은 더욱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수주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다해 당면한 위기를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김갑순 現 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을 재선임했다.



2018년 경영전략세미나 개최

현대미포조선은 지난 3월 8일부터 이틀간 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전 임원 및 부사장, 직책과장 등 220여명을 대상으로 '2018 경영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직책자들로 하여금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함께 전략적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뉴패러다임센터 신동국 대표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가 강사로 초빙돼, 리더십과 팀워크를 주제로 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현대미포조선의 경영환경과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불황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생산기술직 조직 활성화 교육 실시

현대미포조선이 생산기술직 전 사우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는 6월 중순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팀·반장, 조장, 팀원 등 교육 대상자의 직무와 역할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회사의 경영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 달성 의지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사우들의 업무 특성과 애로사항 등을 재구성한 연극을 통해 자신과 동료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높였다.





선박 2척 '2017 세계 우수선박'에 선정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해 건조한 선박 2척(S881, S842)이 세계 조선해운 전문지인 영국 네이벌 아키텍트로부터 '2017 세계 우수선박'에 선정됐다.

지난해 6월 인도된 7천8천700입방미터급 LPG선인 '안데리다'호는 2015년 9월 그리스 선사인 카디프에서 수주한 4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으로 기존 파나마운하(폭 32.3미터)에 최적화해 설계됐다.

또한 에너지 저감장치인 하이핀(Hi-Fin)과 러더 벌브(Rudder Bulb)가 장착됐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장치가 탑재됐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인도된 30만톤급 VLCC(초대형원유운반선)인 '암자드'호는 사우디아라비아 선사인 바흐리에서 수주한 것으로 에너지 저감장치 등이 장착됐고, 조정성과 속도 향상을 위해 비대칭 전가동타(Hyundai X-Twisted Rudder)가 설치됐으며 선박평형수처리장치가 탑재돼 평형수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하다.



세계 첫 '황산화물 저감장치' 장착 VLCC 명명

현대삼호중공업이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가운데 세계 최초로 황산화물 저감장치(Sox Scrubber)를 장착한 선박의 명명식을 지난 3월 13일에 개최했다.

1인씩 A선석에서 열린 이날 명명식에서 이 선박은 스폰서인 엘피니키 스틸로아니 여사에 의해 '알미 아틀라스(ALMI ATLAS)'호로 명명됐다.

길이 336미터, 폭 60미터, 깊이 30미터의 크기로 건조된 이 선박은 그리스 알미사에서 수주한 것으로 선박 방향타와 프로펠러에 연료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장착했으며, 국제해사기구가 규제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는 등 친환경 기술로 건조됐다.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합작 조선소용 크레인 수주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사우디 사우디아람코로부터 합작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크레인을 대거 수주했다.

수주 규모는 골리앗크레인 4기, 타워크레인 20기에 달한다. 특히 수주한 골리앗크레인 중 1천600톤급 1기는 폭 170미터, 높이 140미터 규모로,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약 2년 동안 크레인의 설계, 제작, 조립, 운송을 맡아 회사 내 야드에서 주요 설비를 제작하고, 사우디 현지로 납품할 예정이다.

납품된 크레인의 설치 작업은 발주처에서 맡아 진행한다.

현대일렉트릭

세계 최대 산업용 ESS센터 완공

현대일렉트릭(사장: 주영걸)이 최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울산시 울주군)에 세계 최대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센터를 완공했다. ESS는 전력을 담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로,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7월 고려아연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의 ESS 설치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일렉트릭이 시공한 고려아연 ESS센터는 4만5천여명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5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용 가운데 최대 규모인 현대중공업에 설치된 ESS(50MWh급)의 3배에 달한다. ESS센터가 가동되면 고려아연은 연간 100억원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 투자금액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중고장비 경매 성황

현대건설기계(사장: 공기영)가 3월 17일 충북 음성공장에서 중고 건설장비 경매행사인 '제 2회 현대건설기계 옥션(Auction)'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등 8개국 1천여명의 국내외 고객들이 참가했으며, 1회 행사보다 30% 많은 200여대의 중고장비가 판매됐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처음 열린 현대건설기계 옥션은 중고 건설장비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객사의 신차 구매를 촉진시켜 매출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글로벌서비스

친환경 선박 개조사업 확대

현대글로벌서비스(대표: 정기선, 안광현)가 3월 27일 부산 본사에서 한진중공업과 '친환경 선박 개조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한진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선박들의 친환경 개조에 대한 영업을 펼치고, 배기가스 세정설비(Scrubber)와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BWTS) 등 관련 설비를 공급한다. 이로써 현대글로벌서비스는 그룹 조선 3사 외에 한진중공업의 건조 선박까지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지난해 스웨덴 알파라발(Alfa Laval), 핀란드 바르질라(Wartsila) 등 기자재업체들과 잇달아 전략적 제휴를 맺어, 친환경 선박 개조에 필요한 설비들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심폐소생술 교육

현대오일뱅크(사장: 문종박)가 1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대산공장에서 임직원과 가족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강사로 초빙된 서산의료원 관계자로부터 국내 심혈관계 질환의 통계와 대처법 등 전문 의료지식을 배우고, 실습교육을 통해 성인은 물론 영유아를 위한 심폐소생술을 터득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광역본부 직무 심화교육'을 갖는 등 직원들의 실무능력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울산대학교

올해의 교수상 수여

울산대학교(총장: 오연천)가 3월 15일 행정본관 5층 강당에서 열린 '개교 48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교수상을 수여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높은 수업 만족도로 교육 발전에 헌신한 이한준 교수(47세, 스포츠과학부)가 올해의 교수상을 받았고, 연구 부문에서는 간질환 분야 데이터 분석 업적을 쌓은 임영석 교수(51세, 의학과)를 비롯해 윤동열 교수(44세, 경영학부), 김종면 교수(48세, IT융합학부) 등 3명의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성장한 데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인 자기성찰의 자세로 대학의 미래 존재가치를 더욱 높여나가지"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생체 간이식 수술 사망률 '0%'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361건의 생체 간이식 수술을 시행해 사망률 '0%'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거부반응 관리를 잘 받아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알렸다. 수술 사망률 '0%'는 서울아산병원이 수술 실력뿐 아니라 수술 후 환자관리에 있어서도 완벽함을 입증한다.

한편, 생체 간이식 수술은 뇌사자로부터 간을 기증받아 이식하는 뇌사자 간 이식과 달리 살아있는 기증자 간 일부를 떼어 말기 간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방법으로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저우제린 著)

‘만 시간의 법칙’은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대략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3시간씩을 투자해야만 채울 수 있는 시간이지요. 24시간 중 3시간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적은 시간일 수 있지만, 수면이나 일과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을 제외하면 굉장히 귀중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이 책은 3시간을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위주로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과 대답을 유도합니다.

마지막 책장을 넘겼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 걸까’ 고민하는 자신을 찾게 된다면 이 책은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 해양선장설계부 박지은 대리



LOVE & FREE (다카하시 아유무 著)

요즘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에 대한 경험담들을 책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행을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나 일정 또는 후기 등을 적고 있는데, 이 책은 2년 동안 일본인 부부가 신혼여행 중 여행지에서 순간순간의 느낀 점을 사진과 간단한 글귀로 담았습니다.

이 책의 영향으로 저 또한 여행 중에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메모하고 이를 비슷한 형태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한 권의 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흔한 여행지 소개가 아닌 사랑과 인생을 테마로 여행지에서 느낀 점을 표현한 이 책을 사우들에게 추천합니다.

현대미포조선 선행의장부 정현우 대리



당신과 나 사이 (김해남 著)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겠다며 억지로 애를 씹는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오히려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곤한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미움 받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덜 상처 주면서 또, 인간관계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 김유리 사원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콧, 알렉스 탭스콧 著)

형제인 두 저자가 서술한 이 책은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개선된 미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들은 예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데이터 베이스로 축적돼, 빠른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 이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등장으로 실현될 혁신적인 미래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중이며, 비자카드, 구글, 페이스북 등에서도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세계의 정보화 지도를 뒤엎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현대중공업 기장설계부 박찬세 대리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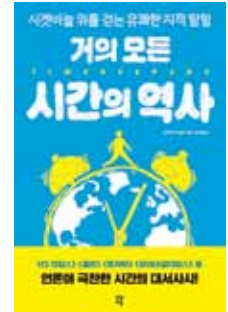
거의 모든 시간의 역사 (사이먼 가필드 著)

이 책은 인간들의 시간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측정, 시간 통제, 시간 판매, 시간에 관한 영화 만들기, 약속 시간 이행, 시간의 불멸화 그리고 시간의 의미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살면서도 정작 시간의 실체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뿐이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을 설명하면 할수록 시간은 더욱 멀어지고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사람들이 직접 겪은 체험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단면들을 독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간이 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흥미롭게 풀어냄으로써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선장설계부 **김건형** 사원



사소한 용기 (자림 著)

이 책은 용기를 내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용기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네의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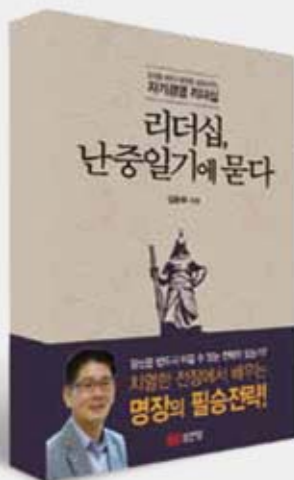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낼 수 있는 사소한 용기들로 충분히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릇 것이지만 나에게 한없이 대단한 용기들. 넘어져 있을 땐 넘어져 있을 용기, 불안으로 자신을 들볶지 않을 용기, 내 자신과 사이 좋게 지낼 용기를 내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냅시다.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김희정** 사원



'지식정보센터' 신간 추천



리더십, 난중일기에 묻다 (김윤태 著)

이순신 장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의 이름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웅 중 한 사람인 만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서는 사우 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역사 전달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저자는 위대한 리더십의 원천은 자신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라 말하며, '업무'와 '임무'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효과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 사우들도 이 책을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지 않고, 자신의 업무와 임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조직의 성과도 올리고,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나날을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박지훈 차장
현대중공업 중국지주회사

중국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중국에 오기 전, 중국은 좀 깨끗하지 못하고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파는 나라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 상하이에 있는 지주회사에 파견 나와 한 달 반을 살아보니, 내가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음을 알게 되었다.

상하이 거리는 시내 중심뿐 아니라 변두리도 상당히 깨끗하고, 특히나 놀라운 것은 일반 상점 및 대중교통 비용도 휴대폰 전자결제만 일반화 되어 현금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하철 타러 들어 갈 때에도 검문을 하고 모든 지하철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 돼 있으며 안전요원이 늘 자리를 지킬 정도로 보안이나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얼마 전엔 우리나라 구정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春節)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춘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의 대이동'으로 북경,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

중국의 춘절연휴는 길게는 한 달까지 이어져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식당이나 상점들이 연휴기간 문을 다 닫아서 춘절 전에 미리 먹을 거리를 사 뒀던 연휴를 대비하곤 했다. 또, 연휴 내내 불꽃놀이를 하여 밤늦으로 잠을 이루지 못 할 정도로 시끄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중국의 춘절 모습은 많이 바뀌어 보통 기업체들도 일주일 정도만 쉬고, 큰 상점이나 쇼핑몰은 춘절 당일에도 영업을 할 정도다. 불꽃놀이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많이 줄어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 맑은 날을 많이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공장들이 대도시 인근에서 멀어지고 있고, 시내에서는 버스나 오토바이도 전기 동력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면 이 또한 머지 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우리나라보다 한 참 뒤 처진 나라로만 인식했던 중국이 이미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



유리꽃

서리 서리 맺힌
매서운 바람결 사이로 스미는
어느 시인의 눈물로 투명한 생명이 탄생한다

공허한 잿빛 하늘
보랏빛 코스모스만큼이나 슬픈 꽃
사랑하는 이의 뜨거운 품에 안기어
마지막 남은 한 가닥의
파르르 떠는 생명선 즐기
젖가슴에 옥동자 안은
어머니의 미소만큼이나 소박한 뿌리

꺾여지길 기다릴까
자유를 소망할까
햇빛에 고개 젓고 별빛에 속삭인다

하늘가 홀로 선 생명
떠난 이를 차마 잊을 수 없어
흘린 눈물이 다시 뜨거워지길 기다리는
강가에 앉은 소년의 작은 바람
한 움큼의 그리움이다



이계우

현대중공업 2017년 퇴직





장대한 군

현대미포조선 건조부
장철화 사우 아들

‘한글 사랑 글짓기’에 참여하며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한글 사랑 글짓기’ 대회 공고를 보고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요즘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나 중학생 형들, 동생들이 이상한 은어나 한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서다.

물론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와 동생도 줄임말이나 은어를 사용하여 엄마에게 종종 꾸중을 들곤 한다. 그러다 문득 줄임말과 은어가 계속 쓰이게 된다면 언젠가 진짜 한글이 잊힐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세종대왕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한글인데 없어져서야 되겠는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줄임말의 예를 들면,

‘깜놀했다 = 깜짝 놀랐다’

‘버카충 = 버스카드 충전’

‘출첵 = 출석 체크’

‘팬아저 = 팬이 아니어도 저장’

‘커엽 = 귀엽다’

‘취존 = 취향이니 존중해주세요’

‘마상 =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아아 =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너무나도 많다.

한글 자판을 이용해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또, 문장이나 긴 단어를 줄여서 쓰면 편해서 좋기도 하다. 그러나 줄임말의 경우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억지스러울 때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가 줄임말이나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을 조사하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은어나 줄임말도 문제이지만 맞춤법을 틀리는 것도 큰 문제다.

울산에 살다보니 표준어뿐만 아니라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어른들의 사투리가 재미있어서 따라하다 보면 맞춤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다.

평소 선생님께서도 이를 지적해주시고 다른 지역 친구들도 나의 사투리를 듣고 웃은 적이 있다.

한글은 맞춤법이 많이 어렵고 헷갈리지만 다른 어느 나라 글자보다 과학적이고 여러가지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 배웠다. 그런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국어를 배우고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다.

한글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시로 표현해 보았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한글

한글은 신기한 것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신기한 것

“히!히!히!” 웃는 말에 “ㄱ” 하나 붙이면
“헉!헉!헉!” 놀라는 말이 되지
신기한 한글이다



한글은 재미있는 것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재미있는 것

“헉”하고 놀라서 “ㄴ”이 뒤집어지면
“학”이 되어 푸른 하늘을 날아가네
재미있는 한글이다

“학”이 날아가며 “ㄱ”을 가져가 버려서
“하~~” 한숨이 난다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한글이다





홍자연 사원
현대삼호중공업 자산운영팀

설레고 가슴뛰는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기

2018년 1월 1일,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중에서 1순위는 바로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이었다.

작년 이맘때 쯤,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운전면허 필기를 공부했던 일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필기는 합격했지만, 문제는 기능과 도로주행이었다.

딱히 운전에 대한 열망이 없었기에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니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허송세월 1년을 보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8년이 되었고, 필기 합격 만료 날짜가 서서히 다가왔다. 부랴부랴 집과 가까운 학원을 찾아보며 등록과정을 마쳤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마터면 필기 시험 또 볼 뻔 했네요.” 첫날, 학원 강사님이 내게 하시는 말이었다.

나의 게으름을 원망하며 예전 공부했던 것들을 찬찬히 되새기며 공부에 열중했다. 주어진 영상 교육이 끝나고, 기능 시험을 위해 운전석에서 실전 교육이 시작됐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 보았다’는 기쁨도 잠시. 브레이크와 엑셀은 왜 이렇게 헛갈리는지, 삐뚤삐뚤 중앙선을 계속 침범하는 이유는 뭔지. ‘브레이크는 부드럽게!’라고 마음속에 외치고 있지만, 내 오른발은 고장이 났는지 급정거만 계속해서 할 뿐이었다. ‘난 운전에 소질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자신감은 급격히 하락해 갔다.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필기 공부만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도 끄찍했지만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실패를 선언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힘든 일이었다.

일단 한 번에 합격하자는 마음은 굳게 접어두고, 속도는 느리지만 차근차근 교육에 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운 브레이크’, ‘중앙선 침범 금지’ ‘무서운 T자’ 등을 조금씩 해내고 있었다. 강사님도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나아지고 있다며 칭찬을 해주셨고, 그 마음을 버팀 삼아 꾸준히 노력했다.

두렵기만 한 기능 시험일이 다가왔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내 순번이 다가왔다. 온 몸은 덜덜덜 떨렸지만, 출발신호에 맞춰 천천히 앞으로 향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시작했고, 끝냈는지 모르겠다. 그저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다. 노력의 결실이 맺은 것일까? 고득점으로 기능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마지막 시험인 도로주행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내에서 홀로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하던 나인데, 과연 자동차가 뽕뽕 다니는 도로에서 과연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처음 도로주행 교육을 받기 시작한 날, 좌회전 신호를 켜 후 도로로 진입하는 교육을 받았다. 차들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무서운 나머지 몇 번의 신호를 보내기만을 반복했다.

강사님이 “지금이야!”라는 신호를 주셨고, 그 소리에 맞춰 엑셀을 밟으며 도로 안으로 진입했다. 그 때부터 내 인생의 진짜 운전은 시작됐다.

좌회전이라 하면 좌회전, 우회전이라 하면 우회전, 옆에서 강사님이 꼼꼼히 주의사항을 알려 주셨지만, 혼이 쏙 나가버린 나는 오로지 대답만 할 뿐이었다.

매일 다니던 목포 길은 왜 이렇게 험갈리는지 내가 알던 길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시간 날 때마다 지도를 봤던 기억이 난다.

결국 이틀에 걸쳐 4코스를 정신 없이 다녔다. 차선도 바꾸고, 무섭지만 차 사이를 끼어들기도 서슴지 않았다.

마지막 관문, 도로주행 시험 날. 제발 도로에 차가 많지 않기를 빌고 빌며 시험장에 도착했다. 나와 같은 시험 대기자들은 수 없이 많았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내 전 수험번호를 단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탄 뒤 코스 체크와 운전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했다. 그 때였다.

“끼익, 실격입니다” 갑작스럽게 황색불로 바뀐 신호 탓에 당황한 수험생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통과해버렸다. 결국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처리 돼 버렸고, 뒷 자석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나는 온 몸이 얼어붙어 버렸다.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내 차례가 다가왔다. 몇 분 전에 실격을 본지라 더욱 긴장이 됐다.

‘침착하게’라는 말을 되뇌이며 코스의 반 정도를 통과한 그 순간, 초록불이 황색으로 변했다. 아까와 같은 상황이었다. 실격보다는 감점이 낮다 싶어 여지없이 급정거를 했고, 차는 횡단보도 중간에서 멈췄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다.

다행히도 실격처리가 되지 않았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감점을 줄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운전에만 몰두했다.

“합격입니다” 그토록 듣고 싶던 합격의 방송 목소리가 들렸다.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고 손엔 땀으로 흥건했지만, 목표를 이뤘다는 것에 찹찹함도 날려버리고 기쁜 마음만 가득했다.

동네방네 운전면허 합격을 자랑하며, 시험 중에 있었던 일들을 마치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다.

운전면허 자격증을 땀지만 여전히 나에게 운전은 무서운 존재다. 언젠가 나도 나만의 차가 생기고 운전이 ‘식은 죽 먹기’라고 말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한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결혼



현대중공업 소각설비운영팀
허수영 기사

신랑 허수영·신부 민혜진
3월 3일

나와 삶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로 영원한 편이 되어
알콩달콩 잘 살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생산부
김효찬 기사

신랑 김효찬·신부 남지현
3월 25일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아름다운 연(緣)으로
하나의 매듭이 되고 하나의 길이 되어
하나의 보금자리를 이루려 합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현대미포조선 종합설계부
양미혜 대리

신랑 임재현·신부 양미혜
3월 25일

2013년 신입사원 연수에서 만난 우리 커플
4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통해 보여준
당신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 행복해♡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웨잇 신랑♥

탄생



현대 E&T
오동근 사원

신랑 오동근·신부 홍다은
4월 12일

오랜 기다림 속에 저희 두 사람
서로에 대한 마음과 이해와 사랑으로
새 출발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사업기획부 나석 대리
총무팀 김은지 사원

신랑 나석·신부 김은지
4월 21일

4월의 봄, 초록의 새싹 위에
두 남녀가 부부의 꽃을 피웁니다.
두 사람의 여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날,
축하와 격려로 자리를 빛내주세요.



현대미포조선 구조설계부
김정만 과장

아빠 김정만·엄마 여아희·아들 김주연
3월 9일

주언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가족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현대중공업그룹 가족들의 결혼, 출산, 돌 등 소중하고 행복한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우 분들은 매일 18일까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gp069@n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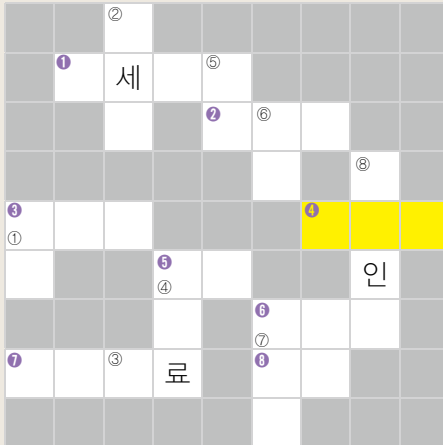
현중이네

by 연자씨

4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 1 산업시설과 자동차 등 인위적인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호흡기 질환 및 심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p.10 참고)
- 2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
- 3 자신의 딸을 각별히 아끼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신조어.
- 4 'Work and Life Balance'를 줄인 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p.4 참고)
- 5 학문이나 예술, 기술 따위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이 깊은 경지에 이른 정도.
- 6 관광 등을 안내하는 사람.
- 7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 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p.34 참고)
- 8 침판을 펼쳐 붙이는 것으로, 강제절단 이후 이루어지는 첫 작업. (p.18 참고)

세로 열쇠

- 1 담양군 전역에서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OO 수확 체험' 이 열려 가족단위 체험객들로 북적인다. 특유의 빨간 색 갈과 단 과즙으로, 봄이 제철인 이 과일은? (p.31 참고)
- 2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일컫는 말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총 10개국, 약 6억5천만명의 인구가 여기에 속한다. (p.28 참고)
- 3 배우나 무용하는 사람들이 연기할 때 입는 옷.
- 4 다시마나 말린 포 따위를 끓인 국물에 넣어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게 하는 등 음식의 맛을 알맞게 맞추는 데에 쓰는 재료.
- 5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 6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를 'OO타임' 또는 '일광절약시간제'라고 부른다. OO이란?
- 7 가두판매를 하는 물건을 놓기 위하여 설치한 대.
- 8 국내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직장인들의 소통 공간이 되고 있다. (p.22 참고)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김성일 현대중공업 플랜트설비생산부

Hotel Hyundai 뷔페권
박영락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지원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김태규 현대중공업 엔진선행기술부
안상윤 현대중공업 해양프로세스설계부
이재동 현대중공업 산업보안팀
설은진 현대미포조선 선체생산설계부

복지회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지진호 현대중공업 판넬조립1부
이철환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장경석 현대중공업 기장부
박차내 현대중공업 대조립2부
이상록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울산현대축구단 상품권(2매)
유효석 현대중공업 FSRU/PM
안현철 현대중공업 특수선의장생산부
윤익상 현대중공업 조선품질경영2부
김동현 현대미포조선 시운전부
김경호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OUTBACK 아웃백식사권
정현철 현대중공업 시운전부
박지호 현대미포조선 시설보전부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최재성 현대삼호중공업 법무팀

Hotel Hyundai 케이크 교환권(1매)
김현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장설계부
손예진 현대삼호중공업 구조설계부

사내 매점 간식 교환권(1만원)
차익선 현대삼호중공업 재무성과분석팀
이용만 현대삼호중공업 관철지원팀
이철휴 현대삼호중공업 의장2부
백경민 현대삼호중공업 선각기술부
나대성 현대삼호중공업 공무부

신안 천일염
전지연 현대삼호중공업 인사팀
김성현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Starbucks 기프트 카드(2만원)
장한솔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설계부
소순일 현대삼호중공업 건조2부

지난호 정답

곤	대				글				
미	나	리			램				
	무		담		핑	계			
		간	담	상	조				
				선	우	에	권		
				공		의			
쿠			과	학	자				
싱	크	홀	대		동	백			
		수	학	화					

가로 4번의 정답을 4월 18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휴대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사람
news@hhi.co.kr

정답

회사명

부서

이름



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송영근 기장

2018년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어 봄소식을 알리네요.

봄이 되면 여기저기 벚꽃 구경이 한창일 텐데 멀리 가지 말고 대왕암 공원이나 슬도, 주전 쪽으로 떠났으면 좋겠네요.

또, 동구가 울산 명소로 거듭나서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지원팀 박영락 사원

'사우들의 추천도서' 코너가 유익했습니다. 또, 다양한 코너를 통해 우리 현대중공업그룹의 요소조모를 간접 체험하고 소식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 사보에는 전국의 봄 축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녹색경영팀 김기성 반장

사보를 통해 지인들의 소식이 나올 때면 더 반가운 마음에 정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우들이 사보에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만큼 예쁜 자연풍경, 여행사진 등으로 꾸며져 있는 코너는 어떨까요?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사진들로 페이지 한 장을 가득 채운다면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의 마음에도 금세 봄이 찾아 올 것 같네요.

현대중공업 조선HSE 운영팀 전재혁 대리

'HSE(건강, 안전, 환경)'에 있어 사우들의 건강 관리는 사내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분들 모두 건강 관리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우들의 이야기가 사보에 소개됐으면 합니다.

현대미포조선 기계의장부 이상록 기원

항상 사보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특히 가볼만한 곳이나 지역 축제에 관한 글이 많이 유익합니다.

다음 사보에는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 건강 관리법을 실어주세요.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박광수 반장

현대중공업 창사 46주년을 맞아 실린 기획 기사가 좋았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님은 어려울 때 의기소침 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고 단결하면 어떠한 불경기도 이겨 나갈 수 있고, 미지의 분야라고 두려워하거나 힘들다고 피하면 안된다는 글귀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창업자님의 글귀를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봅시다.

'현대중공업 가족 4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소감, 아쉬운 점이나 다음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4월 18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기재)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사보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20th

현대예술관 개관 20주년

유니버설발레단

낭만발레의 걸작

지젤 Giselle

04.20-04.21 현대예술관 대공연장

현대예술관 Hyundai Arts Center

44031 울산시 동구 명덕로10

www.hhiarts.co.kr

문의 1522-3331